

우리네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1 **5/6**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275-8505~6
FAX : 2275-8506 KDTA
e-mail: kdt@chollan.net
홈페이지: www.kdta.or.kr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인가 아닌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아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라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창간 81호 2001년 05/06월호

첫발행 1992년 5월 25일/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이윤경·이기원/

윤은이 이경녀, 김희정/펴낸날 2001년 5월 15일

2 권두언	보육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는 우리의 사명	이순형
4 보육정책 1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방향	김종해
13 보육정책 2	보육교사 임면보고 폐지에 관하여	편집부
15 교육논단	아동 인권과 인권교육	서정은
21 현장교육 1	플라스틱 장난감을 자연물 장난감으로 바꿔주세요. 2	양은희
23 현장교육 2	▶밖으로 나가 놀자-▶	이경녀
26 현장소식 1	"또다른 삶을 엿보는 즐거움"- 영화 "친구"를 보고	김수연
27 현장소식 2	4월 14일 부친 동그라미에 무슨 일이.....??...	정연화
29 인물탐방기	진지함과 열정, 그리고 늘 줄이는 여자-서은희 대표님	이경녀
34 어린이와 건강	육아상담 Q&A	편집부
37 어린이와 안전	유아를 위한 화재안전교육프로그램의 실제	윤선화·신현정
58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일본 이스미 보육원의 사례 (부모를 지원하는 이념과 실천)	이혜영
65 좋은 그림책 소개	The Goodnight Moon, [잘자요, 달님]	방연실
68 영어들과의 하루	작전개시	이정미
69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썩썩이 어린이집에서 생긴 일	김미나
71 육아일기	시간의 여유가 마음의 여유까지	전경숙
73 사이버정보망	http://digitallaw.co.kr/디지털로	편집부
74 세상읽기	대우자동차 노조 폭력진압에 대해	박상희
76 목소리 1	천리길 진주라!	주로미
78 목소리 2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하여	편집부
81 일람난		편집부
85 보육계풍향		편집부
87 소식과 소식		편집부

보육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는 우리의 사명

이순형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겸 부속어린이집 원장

봄과 아이들은 같이 옵니다. 새 아기들이 봄꽃과 더불어 어린이집에 들어와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몇몇 아기들이 서럽게 울더니 한 달여 지나 그 울음소리가 웃음소리로 변합니다. 봄철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봄꽃이 늘 새롭게 느껴지듯이 아기들의 웃음소리도 늘 새롭습니다.

개나리꽃을 바라보던 3세 아이가 '바나나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노란색이 바나나 같다고 생각한 것인가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내 얼굴에서 의아함을 보았는지 아이는 꽃 모양새가 바나나 겹질을 벗긴 것과 같이 생겼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부연설명을 듣고서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전합니다. 그 신선한 의미체계를 보고 있노라면 내가 원장이거나 교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느 시인이 말한 '어른의 아버지', 즉 '우리의 선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의 획일적인 의미체계가 구태의연하게 느껴지고 아이들의 똘처럼 부드럽고 신선한 사물의 의미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 부끄럽기조차 합니다.

새삼 꽃밭 속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자신의 일이 교사임을 자각했다는 프뢰벨이 생각납니다. 어릴 적에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 밑에서 잊혀진 듯이 키워진 프뢰벨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전쟁터에서 돌아오면서 이제껏 청춘의 방황이 끝나고 나이 서른이 넘어 분명한 삶의 목표도 없는 자신을 보면서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꽃 속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세계와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봄의 한 가운데 꽃향기에 취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취해서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프뢰벨처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세계에 발 들여놓은 성인들은 그 호흡과 생각이 아이들의 것과 같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동중심철학이라고 하지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느낌과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의 발달적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는 어머니와 격리 불안을 겪고 있고 어떤 아이는 냉정한 어머니 때문에 늘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부부간 불화로 인해 버려질 것이라는 불안을 느끼고 어떤 아이는 가난 때문에 주눅들어 있습니다.

부모들의 잘못과 무책임으로 인해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으며 이 아이들이 불안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린 프뢰벨처럼 친구도 없고 말을 나눌 부모도 없으며 혼자 지내는 아이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배신을 경험하고 아무에게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아이들이 훗날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할까요? 그것을 생각하면 두렵기만 합니다.

어린 가슴에 박힌 못을 뽑아내고 위안해주고 희망을 주는 것은 아이들 가까이 있는 우리 성인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어린 그들의 불안을 가리우며 따뜻한 눈빛과 말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면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고통을 교사 여러분에게서 다소나마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 여러분, 우리는 아이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부모들로부터 고통받은 아이들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함으로써 아이들의 불안과 고통을 덜어줍니다. 우리가 가진 사명이란 바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린 봄꽃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방향

김 종 해 ·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래의 글은 지난 4월 11일에 있었던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의 발제문입니다.

I. 문제 제기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우리 나라의 보육정책의 기초는 이중성을 유지하여 왔다. 추상적인 목표 수준에서는 공보육을 지향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실천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 대한 보육만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그 외의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보육 비용을 부담하는 선별주의를 유지하여 왔으며, 이러한 기초 하에 보육 서비스의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특히 문민정부 시절의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은 시설의 양적 확충에 주안점을 둔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그 결과 2000년 9월 말 현재 19,266시설에서 684,361명의 어린이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준으로 서비스의 양적 규모는 확대되어 졌다. 이후 시설의 양적 확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강조의 방향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육 시설 수 및 보육 아동의 양적 확충에서의 상당한 성과와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초의 이중성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양적 보편주의와 질적 보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있다(믿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이 없다는 부모의 말로 대변된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지 불과 10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양적 성장 업적에도 불구하고 출발점의 한계와 우리 사회의 변화로 현행 보육법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제 새롭게 변화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보육법을 개정할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I. 법개정의 필요성

현행 영유아 보육법 개정의 필요성은 현행 법령의 미비점과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

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 과도한 민간 의존성

현행 보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 의존도가 과도하다는 점이다. 법 제1조 목적에 대상을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로 한정하는 것이나 법 제3조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 비용의 부담에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는 일부 빈곤계층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한 결과 보육시설이 공공시설로 발전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민간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간 의존 경향은 특히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의 실시 이후에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표를 보면 우리 나라의 보육서비스가 어느 정도 민간에 의존하면서 양적으로만 성장해왔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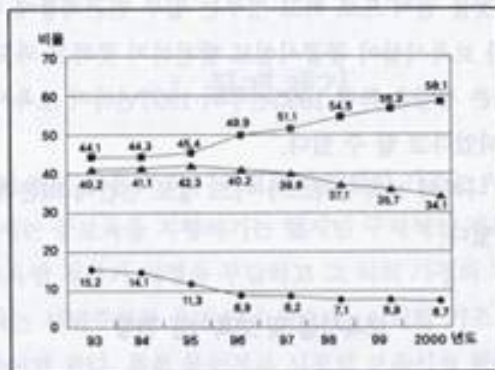
(단위: 개소, 명, %)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9
합 계	시설수	5,490	6,975	9,085	12,098	13,315	17,605	18,766	19,266
	아동수	153,105	219,308	293,747	403,001	456,664	556,957	640,915	684,361
국·공립 보육시설	시설수	837	983	1,029	1,079	1,096	1,258	1,300	1,292
		15.2	14.1	11.3	8.9	8.2	7.1	6.9	6.7
	아동수	55,133	70,937	78,831	85,121	86,560	91,260	99,866	101,096
		36.0	32.3	26.8	21.1	19.0	16.4	15.6	14.8
민 간 보육시설	시설수	2,419	3,091	4,125	6,037	6,809	9,622	10,558	11,195
		44.1	44.3	45.4	49.9	51.1	54.5	56.3	58.1
	아동수	80,400	119,968	170,412	255,844	301,977	400,906	466,477	506,118
		52.5	54.7	58.0	63.5	66.1	72.0	72.8	74.0
직 장 보육시설	시설수	29	37	87	117	132	184	207	203
		0.5	0.5	1.0	1.0	1.0	1.0	1.1	1.1
	아동수	560	976	2,388	3,596	4,251	5,823	7,278	7,637
		0.4	0.4	0.8	0.9	0.9	1.0	1.1	1.1
가 정 보육시설	시설수	2,205	2,864	3,844	4,865	5,278	6,541	6,703	6,576
		40.2	41.1	42.3	40.2	39.6	37.1	35.7	34.1
	아동수	17,012	27,427	42,116	58,440	63,867	58,968	67,294	69,510
		11.1	12.5	14.3	14.5	14.0	10.5	10.5	10.2

** 보건복지부, 2001년도 보육사업 안내

위의 표를 보면 2000년 9월 말 현재 전체 보육시설중 국공립시설은 전체 시설의 6.7%에 불과하고 민간시설(가정보육시설 포함)이 전체 시설의 92.2%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 수에 있어서는 국공립시설이 14.8%, 민간부문이 84.2%를 담당하고 있다. 복지부의 자료가 민간 보육시설에 민간 법인시설과 민간 단체시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부지원시설까지를 공립으로 간주한다면 물론 이 비율은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보육아동의 대부분을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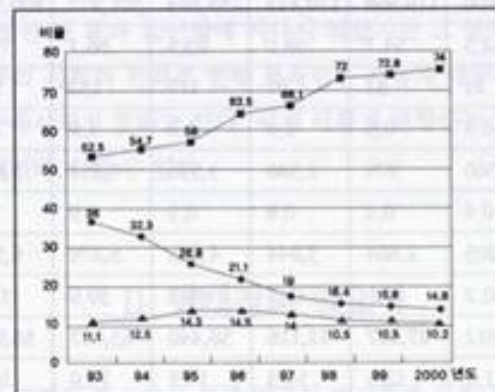
보육시설의 비율



위의 그래프를 보면 시설 수에 있어서 국공립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민간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격차가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 중 2년차 사업이 끝난 96년 이후에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육아동수의 비율의 변화추이도 시설 비율의 변화추이와 비슷하다.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아동수 비율



보육 재정에 있어서는 정부 부담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으나 총 보육재정(정부 보육예산(시설 설립비+시설별 지원+아동별지원)+학부모 보육료 부담액)중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대체로 20%이하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은 우리 나라의 보육사업이 social service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으며 결국 양적 보편주의의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과도한 민간의존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가족 기능의 약화와 육아의 사회화

보육의 의미 또는 사회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의 문제가 사적인 문제인 것이 아니면 사회적 문제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의 가족은 그 기능이 매우 약화되어 있다. 과거 생산과 소비 모두의 기능을 자급자족으로 해결하던 가족은 산업사회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분화됨으로써 생활의 단위인 가족의 기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으며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외부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육아도 마찬가지이다. 과거-농경시대의 대가족제도에서는 육아는 전적으로 가정의 문제였으며 실제 가정에서의 육아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생활방식에서 어머니의 육아가 불가능한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족 내에서 육아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자급자족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결국 현대의 핵가족은 육아의 능력도 거의 상실한 상태이며, 이러한 현상들이 육아라는, 과거에는 사적인 문제였던 것을 이제는 공적인 문제로 전환시킨 것이다.

생산과 소비의 이분화 현상 안에서 가족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사회적 장치로 시장과 공공부분이 있다. 육아의 문제도 우리 사회는 가족 책임을 강조하는 가치관 때문에 가족 내에서 또는 시장 방식으로 많이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구매력-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육아의 문제를 시장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Andersen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육구는 탈상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인구의 노령화

전세계적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었으며 서구도 노령화사회로 이미 진입하였고 우리 나라도 노령화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인구 노령화는 낮은 출산율과 장수예의 기대가 복합되어 일으킨 문제로서 노령화가 진행

된다는 것은 의존 연령 인구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노후 대비가 개별적으로, 가족(자식)의 책임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후 대비의 문제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계층(청장년계층)의 부담으로 전환하게 된다. 따라서 의존연령인구 비율이 노인문제의 중요 변수로 작용하게 되며 이는 단순히 노인문제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노령화문제는 주로 출산에 달려 있다. 흔히 여성 취업이 출산력을 막고 그래서 노령화 위기를 악화시킨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유럽의 경험을 보면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은 여성취업도 낮고 출산율도 낮다. 반대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여성 취업과 출산 모두 높다. 문제는 여성의 취업, 경제활동과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제도들-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가나 휴직, 수당제도와 보육서비스-이 어느 정도 수립되었는가에 있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과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상식적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취업)과 출산, 육아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의 경험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여성의 취업이 높은 국가가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여성의 취업율이 낮은 국가들이 출산율도 낮게 나타난다. 이를 매개해주는 것이 보육서비스나 육아휴직과 같은 출산과 육아를 위한 사회서비스이다.

4. model(standard) family의 변화

육아와 관련된 또 다른 변화는 전형적인 가족 형태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standard family란 전 가족이 남성세대주(male wage earner)의 노동소득에 의존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가족을 말하며 이때 여성은 결혼하기 전의 일정 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하다가 결혼 후에는 출산, 육아, 가족의 부양 등을 담당하는 것이 일상적인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역할이 된다.

그러나 앞으로의 가족에서는 이러한 전형적인 가족 형태나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역할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첫째는 가족 형태가 매우 다양해질 것이며, 둘째는 경제구조의 변화가 가족을 변화시킬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포드주의 생산구조였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대공장제가 생산과 고용의 중심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남성노동자의 높은 소득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가족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탈산업화사회로 진전되고 생산과 고용이 전통적인 산업보다는 문화나 서비스 분야에서 보다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노동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지구화(globalization)된 경제는 경쟁을 심화시키고 이는 남성노동자의 높은 임금 소득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노동 증가와 함께 가족 형태의 변화를 일으키고 나아가서 아동

의 건강한 육아 환경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필요성을 종합하면 여성의 노동과 출산,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증가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기능의 약화와 함께 가정에서 육아를 위한 환경, 아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보다 나빠질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가 단순히 가정에서 육아를 담당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보완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가정에서 육아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로 대두되고, 그 사회적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도 이러한 변화와 필요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III. 법개정의 방향

1. 공공성의 확대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이 내포하는 의미는 하나는 육아-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이며 다른 하나는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보육 정책은 양적 보편주의와 질적 보편주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이것이 보육재정에서의 비용 부담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특히 육아의 문제는 단순히 보호자 가정의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공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재정 부담이라는 정부의 책임이 현재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시설과 서비스가 공적 기관에서의 서비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요구되어야 한다.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적법한 재정 지출 행위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보육법 개정의 커다란 방향은 바로 이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정부 보육 재정의 확대

현재 총 보육 재정 중 정부가 보육 사업 예산으로 부담하는 비율은 20%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법 제3조 ②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

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것처럼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담 비율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으며 보육 비용의 부담도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법 제 21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정부 지원 시설의 확대와 보육료 지원 대상의 확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1) 정부 지원 시설의 확대

현재의 보육 시설 확충의 결과는 지나친 민간 의존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공립 시설이나 민간비영리시설의 확충보다는 민간개인시설의 확충에 의해 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에 따라 시설의 공급은 늘었지만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부담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 의존도를 낮추고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시설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설의 신축이 되었던, 아니면 개인 시설의 전환을 통해서건.

보육 시설의 설치를 보육 수요의 총량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생활권 수준의 지역별 수요 예측을 통해 정부 지원 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이 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아동별 지원의 세분화, 확대

현재의 보육 비용 부담에 관한 정책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시장 논리에 근거한 민간 주도 자율보육체제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는 보편주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현재 100%인 법정 저소득층과 40%인 기타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는 보육료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 세분하여 보육료 지원 대상을 늘릴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보육 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1) 위탁 절차 및 기준의 강화

현행 국공립시설의 대부분은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수탁자의 선정은 보육서비스의 질과 시설의 투명한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시, 군, 구에 위임되어 있는 위탁 절차와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어린이 집 문제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법에 위탁과 재위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서비스의 질적 향상

현행 법령은 공급의 확대와 규제 완화 정책에 의해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중요한 기준들이 완화(악화)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1인당 시설 면적, 교사 1인당 아동 수의 비율 등이 악화된 것들이다(물론 이러한 내용은 법의 문제이기보다는 시행령이나 규칙의 문제이기기는 하지만 법에 이러한 정신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보육 서비스의 질에 대한 법적 규정은 규제가 아니라 보호자가 보육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또는 보호 기제이다. 따라서 법의 내용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정, 강화되어야 한다.

(3) 서비스의 다양화

보육서비스 분야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보편성을 해결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의 경우 대체적으로 보편성의 문제를 해결한 후 다양성의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우리의 경우는 문제의 발전 속도가 보편성과 함께 다양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보육시설의 다양화와 함께 서비스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종일보육과 함께 보호자의 적절한 양육으로부터 유리된 아동들에 대한 보육서비스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공부방 등이나 복지관에서 방과후 보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서비스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IV. 개정안 주요 골자

- 명칭의 변화: 적용 대상의 확대
- 목적의 확대(안1조): 적용 대상 및 보편성의 원칙 추구
- 이념조항 신설(안2조): 영유아 및 아동의 이익 존중, 차별금지
- 대상의 확대(안3조): 아동보육의 대상 연령을 15세로 확대
- 국가 책임 강조(안4조): 조항 순서 조정
- 보육발전위원회 구성(안7조): 보육정책 심의 및 평가와 위탁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기능 강화
- 보육시설의 다양화(안10조): 보육시설의 종류에 법인화 부모협동보육시설의 추가하여 세분화
- 시설의 설치 강화(안11조): 지역별 보육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임면보고 폐지에 관하여

편집부

한국보육교사회는 지난 우리네아이들 3/4월호를 통해 2001년도 보육사업지침에 명시된 보육교사 임면보고와 경력관리의 한보련 이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지부에 종전대로 구청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업무와 보육교사 임면보고 관련 업무를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 1 시설에서 무자격 교사를 채용할 위험이 있고
(이는 바로 보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것입니다.)
- 2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관리소홀이 우려되며
- 3 교사의 경력관리가 전적으로 시설장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어
(한보련의 의사결정조직은 시설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상황임)
이를 악용해 교사의 처우나 권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고
- 4 경력증명서 공신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짐은 물론,
- 5 보육교사들의 일에 대한 의욕과 자부심이 현저히 저하될 것입니다.
- 6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시설종사자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관련법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임면보고 관련 업무를 구청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종사자 임면보고 사항을 법적근거 마련시까지 (한 시적으로) 개별 시설(어린이집)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개별 시설에서 경력관리를 담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위에서 열거한 문제이외에 휴, 폐지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 종사자 기준 강화(안3장): 종사자, 특히 보육교사의 기준에 대한 장을 신설하여 기준 강화
-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안18조): 교사 자격증의 발급을 복지부 장관으로 하며 자격을 1, 2급으로 강화,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위탁절차 강화(안22조): 위탁 사무를 보육발전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절차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운영위원회(안23조):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 특수보육서비스(안24조): 영아, 장애아, 방임 및 학대 아동을 위한 특수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 입소 우선 대상 아동 배려(안25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 입소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이용 보육시설을 배정하도록 조치함
- 평가(안26조): 보육시설의 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보육발전위원회 내에 설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프로그램 강화(안5장, 6장):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강, 영양, 안전과 보육 과정의 기준을 규정
- 차등보육료의 도입(안37조): 부모의 소득 기준에 따라 보육료에 대한 차등 지원제 신설
- 보육수당 도입(안38조):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 보육시설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할 경우 보육수당 지급
- 정부의 비용 부담 강화(안39조): 기존의 정부지원시설 외에 특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보육시설이나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 처벌 규정의 강화(안9장): 기준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며, 허위로 정부보조를 받는 시설의 시설장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부과(안48조)
- 경과조치(안부칙4조, 5조): 민간 공부방 등 방과후 보육 관련 시설 및 교사에 대한 경과 조치 규정

(2002년 보육사업안내 추가 사항)

1. 보육시설 폐지 또는 휴지시 종사자 경력관리 사항 추가

- 보육사업안내 59쪽에서 기 삭제된 "6) 종사자 임·면보고"란에 다음 사항을 대신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6) 보육시설 폐지 또는 휴지에 따른 경력관리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보육시설이 폐지 또는 휴지된 경우 종사자(시설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제출 받아 관리하면서, 동 시설에서 근무했던 종사자가 경력증명서 등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서 발급하여야 한다.

- 동 사항을 추가한 이유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력관리 및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를 해당 시설장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보육시설이 폐지 또는 휴지된 경우에는 종사자의 경력관리 및 증명서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이로 인한 종사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계법령이 삭제되었기에 현재로서는 궁여지책으로 이런 정도의 대책 밖에 세울 수 없다면 현장의 교사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어린이집에 취업 후 가능한 한 빨리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아 근무 시작일이 정확하게 표기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재직증명서를 보관합니다. 또 시설을 그만둘 때도 바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 근무일수가 정확하게 기입되었는지 확인하고 증명서를 보관하도록 합니다.

경력관리와 관련된 불이익이나 문제상황에 부딪혔을 경우 한국보육교사회로 연락을 주십시오.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바탕으로 한국보육교사회는 계속적으로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인권과 인권교육

서 정 은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석사

아동 (아동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인권의 대상으로 누구를 정의해야 하는냐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후에 하기로 한다. 본 글에서는 만 18세미만으로 아동을 일차적으로 규정하고 글의 맥락에 따라 아동, 유아, 아이들 등으로 혼용하기로 하였다.), 인권 (용어에 있어서 '인권'과 '권리'는 각각 포함하고 있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에 대한 논의는 차후로 미루기로 한다. 본 글에서는 대부분 두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에 관해 쓴 필자의 논문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 [유아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참조.)을 요약하여 실겠으니 원고를 달라는 편집부의 요청을 받았다. 논문이 있으니 원고의 절반은 작업한 셈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거니와 회원들과 아동의 인권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 매우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유아의 인권', '유아의 인권교육'에 대한 나름의 중압감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처지이기에 아동의 인권에 대해 관심 가진 많은 회원들에게 나의 풀리지 않은 숙제와 어려움을 드러내어 도리어 아동인권에 대한 선부른 판단과 오해를 갖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다.

그러나 이 글이 아동인권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인권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출발점으로, '아동 인권적 시각'의 초점을 맞추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아동인권'이란 교육현장에서 솔하게 부딪치는 많은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아동의 입장에서 있으려는 노력의 연장선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1. 아동의 인권이란 무엇인가?

아동의 인권 혹은 권리에 대해 여러 의견과 주장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나누고 있다. (각 권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후로 미루자)

===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한 권리의 범주 ===

>> 생존권

생존권에는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 보호권

보호권에는 차별 대우로부터의 보호와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고아들과 난민 아동의 보호가 포함된다.

>> 발달권

발달권에는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균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

>> 참여권

참여권에는 아동이 자신에게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아동에게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 쉽게 동의할 수 있는가? 부분적으로 동의하거나 실제생활에서 가능할지 의문시되는 면은 없는가?

손재주가 조금 있는 내 남편은 손으로 가구 만들기를 즐겨하는데, 내 아들은 공구함에 있는 것들에 호기심을 보였고 그것을 마음대로 다루고 아빠의 작업에 함께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보였다.

아이가 30개월 가량 되었을 때 특히 관심 가졌던 것이 맨 처음 작업에 소용되는 줄자였다. 아이는 찢수를 재기 위해 뺏다가도 손을 놓는 순간 자동으로 감기는 그 줄자를 빼고 다시 자동으로 감는 행동을 반복하며 매우 재미있어 했다. 그 줄자는 견고함을 위하여 쇠로 만들어 자동으로 감길 때 그 옆면을 만졌다가는 감기는 그 힘에 의해 손이 베일 수 있어서 어른들도 사용할 때 조심해야 했다.

남편은 아이가 다친다며 톱이나 줄자 등 위험한 것을 만지지 못하게 하였고, 가까이서 직접 보고 만지려는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곤 하였다. 아이에게 실물을 만지고 실제 상황을 경험하게 하자는 면에서 남편과 필자는 같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이나 물건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남편과 사용법,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으로 갈렸다.

만일 자신의 의견이나 능력을 제대로 (또는 성인처럼) 밝히거나 보일 수 없는 아이들이 무

엇인가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아이가 보육시설에서 자신이 먹을 음식의 양, 종류, 먹는 시간 등을 선택하고 그것이 교사의 의견과 (또는 교육시설의 스케줄이나 방침과)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유아들이 그날의 기분에 따라 (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루종일 아무런 활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개개인의 인간적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함은 마땅한데, 과연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존중하고 보장해줘야 하는가? 등 등 이러한 상황과 질문을 떠올리고 동료교사들과 토론했보자.

이러한 질문은 매일 매일의 일상적인 생활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집단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성인에게 있어 매우 곤란한 질문인 것처럼 보인다. 즉 성인 중심, 연장자 중심의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관습처럼 굳어진 훈육방식, 교육현장의 열악한 조건(많은 아동 수, 좁은 공간 등 열악한 물리적 환경 등)들은 아이들 하나 하나의 인간적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려는 시각을 갖고 실행하는데 있어 장애물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물을 넘어 아동의 입장에 서기 위한 성인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쟁이나 방임, 학대 등의 상황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결정은 매우 당연하다. 이렇듯 아동의 생존과 보호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그 기준은 분명하게 제시되며 대부분은 아동인권의 옹호에 동의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동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상황에서 딜레마를 겪을 수 있는데, 선언적 의미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아동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려 할 때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험한 물건(줄자)을 주지 않고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또한 아동이 무언가를 탐색하고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동이 자신이 먹고 싶지 않다고 하여 야채 등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너무 늦게 또는 아예 조금밖에 먹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을 '존중'하는 것이 아동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아동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여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한 아동 인권 보장이기 때문이다.

이때 각 상황에서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중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이며 그것의 기준은 무엇이며 매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인권교육, 왜 필요한가?

아동이 진정한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을 자각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 남아있는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 인권적 요소를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써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 세계인권선언이후에 인권에 관한 각종 국제 회의에서도 인권활동에 있어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어, UN총회는 1968년 모든 회원국들에게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선언 등에서 선포된 원칙들을 소개하고 지원하며 그리고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 이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UN은 1995년부터 2005년을 인권교육진흥 10년(Human Rights Education, UN Decade 1995-2005)으로 정하여, 전 세계에서 인권교육을 확산하고 강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도 제 42조에서 ‘당사국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여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협약 제28조 ‘교육에의 권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한 29조 ‘교육목적’ 중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 그리고 UN헌장에 정해진 여러 원칙의 존중을 발전케 한다.”는 것도 역시 아동에 대한 ‘인권 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권교육을 학과목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시킬 수 밖에 없으며 부모, 교사, 아동에 대한 인권교육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에게 인권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유아는 물론 성인에게 있어서도 ‘인권’의 개념과 내용은 추상적이며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교육은 쉽지 않다. 또한 인권은 인간의 모든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무엇’이 인권이고, ‘어떻게’ 인권에 대해 배워야 할 지 어렵기 때문이다.

인권은 유아의 일차적 환경인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들에 의해서 학습되며 유아교육기관이나 학교에서 교과과정을 통해 교사로부터 배우게 된다. 인권교육은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의 구체적인 생활 속 사례를 통해 인권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단계에 따르면 유아기 아동의 사고는 사고의 관점이 넓어지며, 내적 표상을 여러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외부세계의 한 부분으로 존재함을 인지하게 되고 외부세계는 자신의 활동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분화가 이뤄진다. 유아는 부모와의 분화를 통해 자신은 부모의 속물이 아닌 주체적인 존재임을 인식하는 첫 단계이다(서봉연, 이순형, 1995). 정신적 조망 전환 능력이 생기고 사회적 관계, 사회조직이나 단체에 대한 지각, 사고, 이해를 포함하는 사회인지가 발달한다. 또한 성장할수록 지식기반이 커져 회상능력이 급격히 발달하고, 기억책략을 사용하려는 자발적인 동기와 의도가 증가하므로 사용 가능한 책략도 풍부해지고 정교해진다. 자신의 권리가 타인 그리고 여러 상황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찾아지는 것을 이해하게 되며 권리를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된다(이양희, 1999).

유아의 인식과 태도는 교육을 통해 쉽게 변화할 수 있기에 유아들이 그들의 인권을 배우고 이해하며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힘을 기르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인권

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인권교육 프로그램들은 그 대상 연령을 18세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하여 매우 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주로 초등학교 이상의 청소년 위주의 프로그램들이기에 취학 전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의 사례와 그 효과에 대해서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필자는 만 5세 유아들에게 적절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어린이집의 원아를 대상으로 2000년 10월 9일부터 11월 3일까지 4주간에 걸쳐 총 12회로 실시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아동과 교사의 반응과 변화를 알아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유아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참조.)

교사들은 아동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해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인권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아동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일상적, 장기적인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3. 인권교육에 대해 교사들이 갖는 의문과 오해

인권교육을 생각할 때 또는 진행하면서 교사들이 흔히 갖게 되는 일반적인 의문과 인권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사면위원회(1997)의 내용을 참조하여 인권교육에 대해 갖는 일반적인 의문과 오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자.

첫째, 교사들은 아동에게 권리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르치는 게 더욱 필요하다는 의문을 갖는다. 그러나 인권교육은 권리와 책임감을 동일하게 놓고 활동 속에서 한 사람의 권리 끝에 다른 한 사람의 권리가 시작된다는 것과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들은 인권주제들이 어린 아동들을 두렵게 하거나 놀라게 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인권을 가르치는 것은 부정적이기 보다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아동들은 그들 자신의 고유한 권리와 인간 존엄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배우기 때문이다. 물론, 인권침해에 대하여 아동들이 받는 정보는 충분하지 않으며 어린 아동을 놀라게 하거나 괴롭힐 수 있다. 하지만, 인권을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쁜 일이 일어나는 지식에 기초하고 있을지라도, 아동들에게 그들이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어떤 것을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필요로 하는 기술과 나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하기 위해 가능한 한 취해야 할 태도들을 주기 때문이다.

셋째, 교사들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학생들이 묻는다면 어떻게 할까하는 두려움을 갖는 것이다. 인권을 가르칠 때, 답변자들은 몹시 단순하게 대답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복잡한

도덕적 질문들은 예 또는 아니오로 단순히 답변할 수 없다. 아동들의 질문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의 "정확한" 답변을 찾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아동들에게 이들 복잡한 이슈들을 소개하여 그들의 이후 생활에 그것들이 관계하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교사들은 인권교육에 게임을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 배우고 기억할 것은 단지 듣는 것보다 직접 해 보는 것이 낫다는 점에서 게임이 이용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교사들은 인권이 아니라, 시민권과 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이것이 인권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실제로, 많은 다른 주제들 속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기술, 지식, 그리고 태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교사들은 인권교육을 아동만이 아니라 성인들과 함께 하길 원하지만 종종 아동들만을 위한 활동이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인권교육을 할 때 대부분은 아동을 위한 활동들이지만, 활동의 많은 것은 역시 성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곱째, 부모와 다른 교사들, 그리고 교장은 인권 교육은 정치적 주입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교사가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권은 사회와 정치에 더 나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기술과 정당 정치는 구분되어야 하며 교사들은 인권교육을 통해 특정한 정책, 정당 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향하여 아동들을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여덟째, 교사들은 인권교육과 도덕교육, 시민교육, 간문화교육, 평화교육 그리고 갈등해결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 적당한가 하는 점에 대해 궁금해한다. 이 주제들은 작은 차이점이 있으나 더불어 내용 면에 있어서는 유사점이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에 관한 활동은 이 주제들의 어디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인권기록에 관계하는 활동은 오직 인권교육 안에서 이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활동에서 참여적인 교육 방법은 모든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 주제들은 모두 같은 목적을 갖는다는 점이다. 결국 이 주제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궁극적으로 아동들이 그들의 세상과 그들이 있는 곳에서 비형식적인 도덕적 결정과 판단을 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하게 될 기술과 태도 그리고 지식 발달을 돕기 위함이다.

이러한 의문과 오해는 인권교육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유아교사들이 일반적으로 느끼거나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것이며 그 자세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다만 분단국가로서 사상의 자유로운 탐구와 표현의 자유 등의 제한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보았을 때, 아동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선입견과 우려와 반대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플라스틱 장난감을 자연물 장난감으로 바꿔주세요. 2

- 종이 그릇 만들기 -

준비물

신문지, 큰 대야, 풀(밀가루), 물, 그릇모양이 되는 일회용 그릇, 한지, 색한지, 물감, 가위, 투명락카

만드는 방법

1. 종이죽 만들기

- ① 신문을 잘게 찢거나 잘라 물을 적실 정도로 뿌려둔다.(물이 많으면 질어진다.)
- ② 밀가루 풀을 쏜다.

• 밀가루 푸는 방법

- 밀가루 5sp에 물을 200cc정도 넣어 덩어리가 없도록 섞는다.
- 물 1ℓ 되도록(800ml) 조금씩 물을 부어가며 풀어준다.
- 약한 불에 올려놓고 끓을 때까지 밀이 눌지 않도록 천천히 저어준다.

- ③ 풀을 뜨거울 때 대야에 부어 신문지와 잘 섞이도록 버무린다.
- ④ 종이죽을 하루정도 재워두면 점성이 커져서 더 좋다.
- ⑤ 물기가 너무 많으면 물기를 짜내고 풀을 더 섞어준다.

2. 그릇 모양 만들기

- ① 만들 그릇의 바깥쪽에 신문지조각을 놓는다.
- ② 종이죽을 신문지 위로 원하는 그릇모양 대로 붙인다. (두께는 보통 1cm정도로 하나 모양이 유지될 수 있으면 얇아도 좋다.)

- ③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린다.(일주일 정도)
- ④ 종이죽이 그릇모양이 유지될 정도로 건조되면 그릇에서 떼어낸다.
- ⑤ 작게 찢은 신문지를 풀로 붙여 가며 모양을 다듬는다.

3. 그릇 꾸미기

- ① 한지로 그릇 모양을 한지로 오려 붙인다. 색한지를 써도 좋다.
- ② 전통문양을 한지로 찢거나 오려 붙인다. 물감으로 그림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문양을 그려도 좋다. 그림을 오려 붙여도 상관없다.
- ③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린다.

4. 완성

- ① 투명 락카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완성된 그릇의 앞뒤를 번갈아 가며 2~3회 뿌려준다.
- ② 여러 개의 그릇을 다양하게 만들되 세트가 되게 만들면 더 좋다.
- ③ 소꿉놀이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과일, 야채, 물고기, 숟가락 등도 만들어 함께 논다.



♪ 밖으로 나가 놀자~♪



연일 계속되는 맑은 날씨에 마음은 싱숭생숭. 어딘가로 떠나고픈 요즘. 주말에 함께 나들이 가자는 기원 언니의 메일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해마다 평동 어린이집에서 계절 캠프를 간다는 '산골아이들 놀이학교'에서 두릅을 따려면 지금 밖에 없다며 초대를 받았다고 같이 가자네요.

공기 좋은데서 조직 논의에 대한 계획도 잡자는 말에 '허걱!' 소리가 절로 나왔지만 그래도 나간다는 게 어디나 싶어 "얼씨구!" 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대전시의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려 동학사-계룡산 초입인 건 아시죠? 몇 년 전 지탁연 여름 수련회를 했던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묵었던 동학 산장도 여전히 잘 있더군요. 가는 102번 버스를 타고 생전 처음 보는 분홍빛 노을에 절로 한숨을 쉬며 동학사에 내려서니 이미 어둑어둑합니다.

동학사까지 데리러 나오신 놀이학교 선생님인 권완상 선생님 차를 타고 가는 길에 번쩍번쩍 카페들이 들어찬 걸 보며 사람들이 좀 모이는 곳이다 싶으면 생겨나는 흥청망청 분위기에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깜깜해서야 들어선 '산골아이들 놀이학교'는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량 양옥집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좀 실망스러웠다고나 할까요? 제 상상은 통나무집 같이 생각했거든요. 그치만 얼마 안 있어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둑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집 옆에는 마당이 있고 예닐곱 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이날 들살이 하러 온 아이들이랍니다. 큰 나무에는 춘향이 타는 그네도 걸려 있고 짚으로 만든 움집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개들과 토끼들이 사는 집도 있구요.

집안에 들어가니 저희가 늦어서 아이들 프로그램에 차질이 생겼다고 할 말은 다 하지만 반갑게 맞아주시는 손성숙 선생님의 인사를 받으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참, 권 선생님과 손 선생님은 얼마 전에 부부의 연을 맺었다고 하더군요.

식사 후 낯선 분위기에 어색해 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불놀이한다며 앞동산으로 올라가더군요. 기원 언니와 저는 주변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앞동산에 올라가니 아이들은 한 쪽 원두

막에서 불을 지피고 가래떡을 구워 먹고 있더군요.

아이들이 노는데 방해될까봐 비켜 나와 마을을 바라보니 정말 절경입니다. 뒤로는 능선이 부드러운 산이 감싸주고 앞에는 계곡이 흐르고 그 앞에 집들이 울망줄망 모여 있는 모습이 그야말로 한 폭의 산수화였습니다. 쏟아지는 하늘의 별은 기본이구요. 이 순간부터 저는 산 끝아이들놀이학교 예찬론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집에 오는 차를 타기 전까지 계속 "우와!" 하며 감탄을 연발했으니까요.

아이들은 밤 10시 반쯤 불놀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권 선생님과 손 선생님, 그리고 저와 기원 언니, 권 선생님네 사촌 동생부부 이 가족은 우리보다 더 늦게 왔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어른들끼리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밤의 주된 대화는 놀이학교의 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한마디로 개판이었죠. 놀이학교에는 평소에 10마리 이상의 개들이 있는데 그 개들의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개만도 못한 놈'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더군요. 실제 애네들이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더군요.

여기서 잠깐 퀴즈

바둑이라는 개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 새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의 글을 자세히 보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바둑판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이학교에 온 아이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하더군요.

다음 날 눈을 뜨니 아이들은 이미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도시인의 늦잠 버릇이 좀 창피하더군요. 아이들은 산에 올라가서 본 도통농 알 얘기며 울쟁이 얘기며 자기들이 보고 만진 것들을 들려주느라 바빴습니다. 옆에서는 연신 폴피리 소리도 들려오고요.

밥을 먹기가 바쁘게 바깥으로 나가는 아이들을 따라 갔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에서 아이들과 구슬치기도 하고 외밭 그네도 탔습니다. 옆에서 동주는 삼자루 들고 땅파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움집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움집은 오목이와 공식이의 집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니 꽤 아늑해서 등글게 모여 앉아 옛이야기하기에 딱 좋겠더군요. 개똥도 없고.

권 선생님이 토끼에게 밥을 주자하니 다들 마당의 풀을 뜯어 토끼장으로 성큼성큼 들어갑니다.

니다. 토끼 똥도 있고 토끼들이 움직이기도 해서 전 좀 무서웠는데 이미 아이들은 어제 하루를 지내며 자연의 일부분이 된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네 타고 굴렁쇠 굴리고, 구슬 치고.... 놀고, 놀고, 놀고...

기원 언니가 회의하러 가자는 말에 공책 들고 앞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른 들판이 떠억 하니 있더군요. 아이들이 뛰놀기에는 그만이었습니다. 한쪽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회의를 하니 물론 둘이 하는 것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척척 얘기가 잘 풀렸습니다.

아이들이 쑥을 캔다며 바구니 하나씩 들고 올라오더군요. 웅기종기 모여 쑥도 캐고 수수께끼 놀이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떡은?' '쑥떡쑥떡' '전쟁이 난 곳에 쑥이 많은 이유는?' '쑥대밭이 되니까' 쑥대밭 얘기는 상민이라는 아이가 낸 수수께끼였습니다.

쑥을 캐다 지치면 풀각시도 만들고 줄넘기도 하고 움집에도 들어가고.... 그 답엔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전 두름 캐러 갔거든요.

배가 고파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지혜가 한숨을 쉬더군요. 내일부터는 또 바이올린이다, 컴퓨터다, 숙제다 하며 놀 시간이 없다고. 저도 옆에서 한숨을 쉰다.

점심으로 칼국수를 먹은 후 우리는 또 놀러 나갔습니다. 권 선생님이 트럭을 태워 주신다기에 짐 실는 자리에 아이들과 앉았습니다. 차가 막 달리기 시작할 무렵 어디선가 우리의 함성을 들은 흰발이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개들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영화 보면 래쉬나 벤지가 달리는 장면 생각나시죠? 정말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흰발이는 신나게 달려오고 아이들은 입을 모아 "흰발아! 힘내! 흰발아! 달려!"하며 목청껏 웅원을 했습니다. 트럭이 도에촌에 들렀다 오는 길에 아이들은 저마다 흰발이가 힘들 테니 차에 태워달라고 난리입니다. 트럭에 올라탄 흰발이는 그야말로 영웅이었습니다. 다들 흰발이를 쓰다듬으며 "진짜 잘 달린다!" "진짜 멋지다!" 감탄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 맛에 흰발이는 또 그렇게 달리겠지요. 놀이학교 개들은 산에 아이들과 산책 갔다가도 먼저 내려가는 아이들에게 길 안내를 한다니 이미 도우미 수준을 넘은 듯 하네요. 아이들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함께 모여 그런 그림에 왜 그렇게 개 얘기가 많은지 이제서야 이해가 났습니다. 아무튼 흰발이의 카리스마가 앞으로도 쭉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도 놀이학교를 생각하면 편안해집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 속에 자연스레 스며있는 놀이 프로그램과 위험요소가 거의 없는 공간, 그래서 너무나도 여유롭고 자유로와 꼭 다시 가고 싶은 곳입니다. 아니 전 정말 그 곳에 다시 갈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또다른 삶을 엿보는 즐거움”

-영화 “친구”를 보고-

김수연 · 서울, 씩씩이어린이집

“영화 보러가자! 오천원에 보여줄게!!” “좋지!”

이렇게 해서 나는 영화 ‘친구’를 보러가게 되었던 것이었다.

길눈이 어두운 나는 같이 일하는 교사에게 한참을 설명 듣고도 모자라 약도가 그려진 종이 쪽지까지 가방에 챙겨들고 길을 나섰다. ‘이순신 동상 지나서 바로 내리라고 그랬지’ 얼른 뱃속을 누르고 버스에서 내렸다. 순간 높은 건물에 어지러웠고 약도가 그려진 종이쪽지는 어느덧 내 두 손에 꼭 쥐어져있었다.

‘여기가 맞나?...’ 확신 없이 가는 길은 참 멀다. 더군다나 혼자 가는 길은... 긴가 민가 맞겠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던 나는 반갑게도 진숙 언니를 만나게 되었다.

드디어 도착! 점심을 맛나게 먹고 자리에 앉았다.

소독차 뒤를 쫓아다니는 아이들로 영화는 시작된다.

결쫇한 부산사투리와 군데군데 나오는 시대적 배경들의 소품만으로도 보는 사람들은 추억에 잠길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성격의 네 친구!! 그중 둘들이 비슷하게 가는가 싶더니 결국 네 명 다 서로 다른 각자의 길을 가고 말았다.

준석(유오성)은 부친의 가업(?)을 이어받아 짬뽕의 길을 가지만 나름대로의 원칙을 지키는 강한 보스로.

동수(장동진)는 준석 다음의 이인자의 역할에서 준석과 맞서는 라이벌로.

상택(서태화)은 모범답안생활에서 잠시 벗어났다가 다시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는 인텔리로.

중호(정운택)는 약방의 감초처럼 잔죽거리지만 이 네 명의 친구를 어울리게 해주는 접착제의 역할을 해준다.

-나의 친구를 생각해본다. 나를 지켜봐 주는 친구가 있기에 내 삶은 윤택해졌다.-

이중 눈여겨볼 만한 것은 장동진의 악역연기다. 매너 좋고 부티 나는 헐리웃의 캐릭터를

벗어버리고, 잔인하고 비열한 연기 변신을 한 것이다. 장동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면을 봐서 좋았겠구,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면 새로운 연기변신에 호감을 느꼈을 것이다.

재미도 있고 짜임새와 캐스팅도 좋았다. 하나 아쉽다면 부산 사투리 일색이어서 서울에만 살았던 나는 ‘잠’으로만 넘겨짚으며 알아들은 내용이 많았다 라는 것이다. 부산 사투리를 모르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부산원어로 된 자막을 넣으면 어떨까 싶다.

잠깐 동안의 일상탈출 영화관람!! 분명 매력적이다.

더군다나 오천원에 볼 수 있다면야...

평범한 토요일 오후를 꽤 차게 해준 ‘서울지부 홍보부’ 여러분!! 화! 이! 텡!

4월 14일 부천 동그라미에

무슨 일이,,,,,,,,,,,,,??..

정연화 · 경기, 평동어린이집

보육교사회에 몸을 담고 처음 맞이하는 경기지부 회원의 날!!

날씨도 좋은 토요일에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좋은 이야기 나눌 생각을 하니 아침부터 마음이 설렌다. 그 마음을 알아차렸을까? 민들레반 명송이란 녀석의 귀가지도에 착오가 생겨서 4시 30분, 도착해야 할 시간이 되어서야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영신 선생님과 함께 서둘러 수원역으로 가서 금주 선생님과 합류. 전철에 올랐다.

숨을 돌리기가 무섭게 영신 선생님께서 꺼내주시는 지끈 한 풍치!

우리는 불쌍하게(?), 또 신기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곳곳이 지끈 가방을 짊 나갔다. ‘동그라미 어린이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까지 악착같이 가방 찌기를 계속했다.

부천 동그라미 어린이집에 도착하니, 총회 때 뵈었던 익숙한 선생님들과 이윤경 공동대표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신다. 오랜만에 만나 못 나눈 얘기를 나누라.. 어린이집 구석구석 구경하라..조용하던 어린이집이 떠들썩하다.

먼저 맛있는 떡다귀 해장국으로 식사를 하고 나서 우리 나라 영유아 보육의 문제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등의 토론을 시작하였다. 짧게 마무리하기로 계획했지만, 대표님의 열띤 강의와 여러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9시가 되어서야 매듭이 지워졌다. 영유아 보육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복지부 양 부처간의 협의 구조와 논의의 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보육의 개선이나 운영 방안 등의 정책토론도 의미 있었지만, 자료에 있던 1978년 유엔 총회 발표 글이 기억에 남는다.

〈한 사회의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의 수준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 사회의 정의감과 미래에 대한 헌신, 그리고 다가올 세대를 위한 인간다운 조건을 강화하려는 외침을 반영한다. 이는 각 개별 국가에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공동체에도 해당되는 사실이다.〉

토론이 끝나고 주영 선생님 생신 축하와 '동그라미 어린이집'의 발전을 바라는 조촐한 축하 파티가 이어졌다. 파티가 끝나고 안산에서의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부천 동그라미 어린이집에 예쁜 일 가득 하길 바라구요.

벌써 선생님들 보고 싶어요. 총회 때 뵈었던 다른 지역 선생님들 소식도 궁금하구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인물탐방기

이경녀 · 본회 사무국장

진지함과 열정, 그리고 놀 줄 아는 여자

-서은희 대표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지탁연 시절 먼 발치로 본 그녀는 다소 차갑고 냉정해 보였습니다. 그 당시 회원들은 열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나만 그런 생각을 한 건가?) 저런 사람도 우리 회원이구나 하는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보육교사회에서 만난 그녀는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는 항상 진지하고 아이들의 입장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앙에서 함께 일하는 그녀는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래방에 가면 유승준의 랩을 열심히 따라 부르고 자신의 개인기라며 조성모의 다짐에 맞춰 셔츠 자락을 휘날릴 줄 아는, 강강술래 목청 돌리 부르며 밤새 놀아보자 해도 지칠 줄 모르는 그녀.

딱딱할 줄 알았던 그녀의 속에는 진지함도 있지만 그보다 더한 뜨거움이 있고 편이 펼쳐지면 신명나게 노는 그런 사람입니다.

❶ 보육교사회의 인연은 어떻게 맺었어요?

한국보육교사회의 전신인 지역사회탁소연합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88년 봄이었어요. 같은 과 후배인 윤정미(한미어린이집의 오윤정 회원)의 소개로 지탁연을 처음 알게 되었지요. 이 때가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던 때였어요.

제가 처음 지탁연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저를 처음 맞아주신 분은 최선희 사무국장님이었어요. 저는 공단지역에 있는 탁아소(그 때는 어린이집을 이렇게 불렀지요)에 나가 자원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지요. 그런데 서울 지역에는 자원활동 할 일손이 그리 필요치 않으니 좀 멀지만 안양은 어떻겠냐고 하셨지요. 그 때는 안양이 멀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때 집이 쌍문동 이었는데 일주일에 3번 이상을 이곳에서 살았어요.

‘민들레 어린이집’은 주변에 크고 작은 공장들과 벌집 같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안양 호계동에 자리잡고 있는 어린이집이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6개월의 자원활동 후 정식으로 보육교사가 되어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답니다. 이 곳에서 일하면서 남편을 만났고 아이도 낳았지요. 여기서의 3년간의 교사생활은 저에게 많은 ‘끼리’들을 던져 주었습니다. 처음 지탁연을 찾아갔을 때는 아동교육보다는 기혼여성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써 탁아소를 생각했었지요. 그러나 아이들과 하루종일을 부대끼며 생활하면서 관심이 점점 아이들 교육으로 옮겨지더군요. 그래서 지역에서 교육연구부를 만들어 뜻 맞는 교사들끼리 모여 공부도 했고, 아이 낳고 쉬는 2년간은 지탁연 중앙의 교육연구부원이 되어 어린아이를 돌보아주고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그리고 내가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제가 지탁연 회원(보육교사회 회원)이 된지 벌써 13년이 되었네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되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잘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것 말고는 말이지요.

❖ 처음 언니를 뵈었을 때는 미혼이거나 결혼했어도 신혼일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벌써 큰아들이 있더라구요. 보육교사회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지요. 좀 놀라기도 했는데 일찍부터 결혼했으니(근데 보편적 기준으로 보면 그리 어린 나이에 한 것도 아니예요)가정과 일을 병행하며 힘든 것도 많았을 텐데 지금까지 잘 해온 자신만의 노하우는?

그 때는 결혼을 일찍 하는 것이 집에서 독립하는 길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고, 나도 남편도 둘 다 자취를 하다보니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여러모로 생활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복병이 생긴 거예요. 아이는 늦게 갖으려고 했는데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결혼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선배들의 말이 딱 맞더라구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아이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 의무감 등을 가지며 조금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일도 열심히 하고 싶고, 아이와 남편과 알콩달콩 살고 싶고, 두 쪽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아이와 남편의 많은 도움, 그리고 동료들의 배려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헉헉거리며 살고 있는 제게 무슨 노하우가 있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우리 아이가 얼마 전에는 ‘엄마, 보육교사회 이제 좀 끊으면 안돼요?’ 하더군요. 아이 나름대로 쌓인 것이 많을 거예요. 어쨌든 성실한 엄마가 되려고 성실한 사회인이 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 집에 전화하면 ‘여기는 구본철, 서은희, 구한결네 집입니다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데 이는 평등 가족을 지향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나름대로 그런 생각에서 시작했어요. 전에는 남편 이름이 제일 처음 나왔는데(연장자니까), 요즘은 제 이름이 제일 앞에 나와요.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가족은 나,

남편, 아이 모두 똑같은 주인임을 우리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깃들 어 있지요. 또, 음악을 바꾸어가면서 녹음하는 것은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집의 색깔을 음악을 통해 나타내고 싶은 생각에서지요. 우리 집에 언제 전화해 보세요. 기분 좋은 음악과 목소리가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 보육교사로서 다양한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중 가장 우선적인 것 세 가지 있다면요?

전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한 시설에서 오랫동안 있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대신 여러 유형의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나름대로 많이 배우고 나 자신을 성숙시켜나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단지역의 비영리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지탁연 교육연구부가 팀이 되어 모범적인 교육내용을 만들어 보자며 함께 개원을 준비하고 교사로 일을 하였음), 공동육아방과후.

공단지역 어린이집에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옮길 때는 좀 갖춰진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일하는 과정에서 많이 부족한 나 자신과 객관적인 조건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지요. 이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공부하면서 공동육아방과후 교사로 일했어요. 공동육아방과후 교사로 일 하면서는 인간적인 교수가 많았지만 교사로서는 참 많이 배우고 성숙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세 가지라. 글썽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아이를 인간적으로 이해해 주는 부모와 교사, 충분히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옛날의 공터나 마당 같은), 공해에 켜들지 않은 먹을거리라고 생각해요. (자세히 설명하려니 시간이 없군요)

❖ 현재 보육교사회 교육센터에서 전통교육 관련 강좌도 마련하고 있고 또 전통교육연구팀에서 작년부터 전통교육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데 전통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와 공부하면서 갖게 되는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해 주세요.

전통교육에 대한 관심은 아주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동안 요구는 있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았었지요. 그러다 대학원 진학을 결심할 때 학교에 가서 우리 나라 전통육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갖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학교에서는 그걸 공부할 수 없었지만 그 시점을 계기로 예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나가고 배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오래 전부터 갖고 있다보니 기회가 생기더군요. 마을수준교육과정 연구소의 문재현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함께 공부하고 방향을 찾아나갈 동료들이 생겼지요.

전통교육연구팀 활동을 시작한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아직은 전통교육연구팀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내용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팀원들이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한 달에 한 번 모

여 밤을 새우면서 토론하고 배우고 하는 모습 속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새로운 '꿈'을 품으며 살고 있답니다. 무슨 꿈이냐구요? 다음에 일하게 될 어린이집에서는 우리 옛 전통교육을 생활에서 실현하면서 전통을 현대에 계승하는 그런 보육을 하고 싶습니다. 이젠 저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보육교사회가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이기도 하지요.

❖ 어린이집 경력도 그렇고 전통교육연구도 그렇고 항상 무언가에 도전하고 노력하는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자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끊임없이 찾아내고 도전하는 열정의 힘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추진력을 가진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이 되자'가 저의 생활신조이지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을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의 또 다른 면은 제가 그 일에 뛰어들기 전에는 그 일에 무관심하던가 소극적인 것이 저의 단점이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이 저를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저의 두 가지면 중에서 한 가지 면을 자주 보셨기 때문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저는 무슨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다 보면 꼭 그 다음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과제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소망이 깊으면 이루어진다' 이 말 멋있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디선가 들은 말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꿈', '바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일상이 나태해지거나 지루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 요즘 여행을 가기 위한 계를 붓고 있다는데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이며, 누구랑 가고 싶으세요? 가족이겠지요?

아직 시작한 것은 아니구요. 5월부터 시작하려고요. 회연 언니가 영국에 가신다고 해서 그걸 계기로 1년간 열심히 돈 모아 영국에 한 번 가볼까 해요. 외화낭비하지 않도록 잘 갔다 올 자신 있어요. 올 초에 순옥 언니랑 정애 언니가 인도 갈 때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갔어요. 지금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은 나, 기원씨, 정애언니 이렇게 셋이에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 처음 부회장을 맡으며 남긴 전설의 명언 '조직에서 10년을 배웠으니 이제는 내가 조직을 위해 일 해야 할 때맞조까' 라고 했는데 좀 더 보충 설명 해주고 요즘 심경은 어떠한지요?

그 땐 정말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절절했어요. 그렇다고 지금은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니구요. 막상 중앙에서 일을 하다보니 제가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时时 때때로 느껴요. 그래서 좌절과 실망을 하기도 했구요. 내게 주어진 역할과 일들을 잘 수행하는 것이 조직을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요즘도 중심을 못 잡고 헤

맬 때가 있지만 어쨌든 받은 만큼, 아니 받은 것 이상으로 나누고 싶은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 이제 어느새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아, 물론 얼굴은 30대 초반 이거나 20대 후반이지만 40대, 50대, 60대에 어떻게 살았으면 싶은지 혹시 생각해 둔 게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상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답니다. 아직 30대 중반이니 40이 되기 전에 그런 상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지요.

❖ 마지막으로 회원들께 한마디 한다면요?

보육교사회 활동을 13년 한 것치고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회원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낮을 좀 가리거든요. 함께 일이나 모임을 하지 않은 회원들과고는 쉽게 친하게 지내질 못했던 것 같아요. 중앙에서 일하면서 이런 저의 소극적인 성격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저의 틀을 깨고 싶어요. 앞으로는 많은 회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나누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5월이에요. 5월의 푸르름과 생동감이 저는 너무 좋아요. 행사가 많아 몸은 고달프지만 잠시라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순간의 여유를 우리 회원 모두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린이와

건강

육아상담 Q&A

편집부

지난 호에 이어
홍은소아과(gph.co.kr)의
의료 상담실에 들어온
육아 상담과 답변을 소개합니다.

Q 20개월 된 딸이 변비가 심합니다. 변비에 원인이 잘 먹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정말 먹는 양이 적습니다. 이유식 시기가 늦어져서 그런지 밥도 하루에 저녁시간에 어른 수저로 한, 두 숟가락 정도... 그래서 아직 우유병도 끊지 못하고 분유는 얼마 전까지 같이 먹다가 중단했고 생우유와 두유(하루 500ml 정도)만 번갈아 먹입니다. 우유를 컵에 주면 입만 적시는 정도로 마시고 우유병에 쥐어만 먹습니다. 변은 하루에 한번이나 이틀에 한번정도 보는데 보통 피가 묻어 나옵니다. 아쿠르트가 변비에 도움이 안 된다고요? 하루 1개씩 먹이거든요.

A 안녕하세요? 홍은 소아과 유영이입니다.

변이 딱딱하고 피가 나올 정도라면 변비가 심한 편이군요.

아이가 염소통처럼 대변을 본다면 좀 문제가 있는 변입니다. 아이들의 변비는 설사의 반대의 의미에서 또한 질병인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아이가 설사를 하면 바로 병원에 오시는데 변비가 생기면 그래 언젠가 누웠지 하며 놔두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변비는 설사보다 더 만성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먹는 음식의 종류, 먹는 양, 소화흡수 정도에 따라 대변을 보는 횟수가 달라서 어떤 아이는 하루에 몇 차례 변을 볼 수 있으며 또 어떤 아이는 며칠만에 한번씩 변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만에 한번씩 변을 보더라도, 딱딱하게 굳은 상태가 아니면 변비라고 할 수 없으며 변비라 함은 횟수뿐만 아니라 변의 딱딱함도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변비는 병적인 원인보다는 심리적인 원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3세 이전의 아이에게 대변 가리기 훈련을 너무 엄격히 시키면 변을 참아버려 변비가 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아주 재미있게 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대변을 자주 참게 되면 변이 딱딱해져서, 다음에 대변을 볼 때 항문이 찢어져 통증이 발생하는데 통증 때문에 더욱 대변을 보지 않게 되어 대변이 더욱 배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대변이 계속 배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대변을 볼 수 있는 신경이 마비되어 대변이 꼭 차있어도 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더욱 더 변비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변비의 치료 및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생활의 개선과 함께 대변을 규칙적으로 볼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의 변비는 먹는 양이 적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먹는 양이 적은지 살펴보고 적게 먹는다면 젖이나 우유를 더 보충해 주도록 노력하고 만일 먹는 양이 적지 않다면 신생아의 경우에는 과즙 등을 1일 5-15cc 정도를 2-3회 먹이면 도움이 됩니다.

이유식은 변비 치료에 아주 효과적이므로 이유식을 먹는 시기라면 섬유질이 많은 과일과 야채 같은 이유식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7개월이 되면 과일은 과즙 대신에 곱은 것을 주고 야채는 거른 것이 아니라 으갠 것을 주어야 하며, 아이가 10개월이 되면 과일과 야채는 잘게 다지거나 자른 것을 주어야 효과적입니다.

분유를 먹일 때는 진하게 타거나, 연하게 타는 것은 큰 차이가 없으며 다만 곡분을 섞어서 약간 진하게 먹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니다.

생우유는 아이에게 맞지 않는 경우에 변비가 올 수 있으므로 최근에 생우유를 먹이기 시작했거나 많이 먹었는지를 살펴보고 가능하면 적게 먹입니다. 만일 생우유가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면 생우유는 젖이나 우유처럼 필수식품은 아니며, 다른 이유식만으로도 충분히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먹일 필요는 없고 몇 개월 후에 다시 먹여볼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는 변비에 도움이 된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변비의 치료로 많이 먹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관장은 변비 초기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신생아는 약물을 사용하지 말고, 체온계를 항문에 넣다 뺀다 하면서 자극을 주거나 새끼손가락으로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큰 아이는 약국의 관장약을 사용해 볼 수 있는데 관장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관장하는 것은 가능하면 줄여야 하며 관장을 너무 자주 하면 아이가 관장에 의지하게 되어 변비가 더 악화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변을 보는 습관은 변비 치료에 아주 중요합니다. 변비 치료 초기에는 관장을 해서 변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매일 식후에 일정시간을 정해서 변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15분 동안 힘을 주어 하루에 한번씩 대변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습관은 단시일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대변을 보는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개월간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운동은 가능하면 많이 해서 장의 운동이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너무 집안에 있거나 침대에만 누워있는 경우에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장제는 변비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국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정장제는 추천하고 싶지 않으며,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변비치료제는 기름 성분의 약을 주로 사용하는데 단기간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약 3개월 정도 먹이면서 규칙적으로 대변보는 습관을 들이면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아변비의 대부분의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이나 대변습관에서 나오지만 호르몬질환이나 신경근육질환 등의 질병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비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1차적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에 이로운 음식들

야채와 과일: 변비에는 섬유질 많은 음식을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먹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섬유질 많은 음식은 야채와 과일입니다. 간혹 야채와 과일을 먹이라고 권하면 우리 아이는 과일과 야채를 엄청나게 먹는데 그래도 변비가 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다시 물어 보면 적게 먹이면서도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과일을 썰어서 줘만 먹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이실 때는 그 나

이에 맞는 양을 육아책을 보고서 미리 파악하셔야 합니다. 과일은 통째로 먹이거나 강판에 갈아서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야채 과일: 자두, 살구, 배, 복숭아, 뽕, 완두, 시금치, 건포도, 부추콜리, 양배추, 팥콩(4세가 지나면 먹이세요)

변비에 피해야 할 음식들

우유, 아이스크림, 요거트, 치즈, 삶은 당근, 감, 바나나

• 오렌지 주스는 별로 변비 치료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즙을 낸 사과나 바나나는 변비를 일으키지도 않고 악화시키지도 않습니다.

• 간혹 밥 많이 먹으면 변비가 안 생긴다고 생각들 하시지만 쌀밥 그 자체는 변비를 유발하는 식품입니다. 같이 여러 가지 반찬을 먹으면 이 반찬에 들어 있는 섬유질이 변비를 예방해 줍니다.

야구르트: 변비에 야구르트가 좋다고 우유를 너무 많이 먹는 아이에게 야구르트를 하루에 두세 개 더 먹이기도 합니다. 우유를 많이 먹어 변비가 생기는 아이들에게 야구르트를 먹이면 처음에는 좀 좋아지다가 조금 있으면 더 변비가 심해집니다. 요거트 양만큼 다른 음식 먹는 양은 또 줄어들어 섬유질 섭취가 줄 수 밖에요. 우유 많이 먹는 아이에게 변비가 생기면 유제품의 양을 우유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교사모임을 실시합니다.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김유호 선생님과 함께 어린이집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건강교사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서울지역의 6개소 어린이집(동국대, 새터, 싹싹이, 어깨동무, 이화, 자암 어린이집)의 건강 담당 교사들을 중심으로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 후 진행 상황과 관련 자료들은 본 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를 위한 화재안전교육프로그램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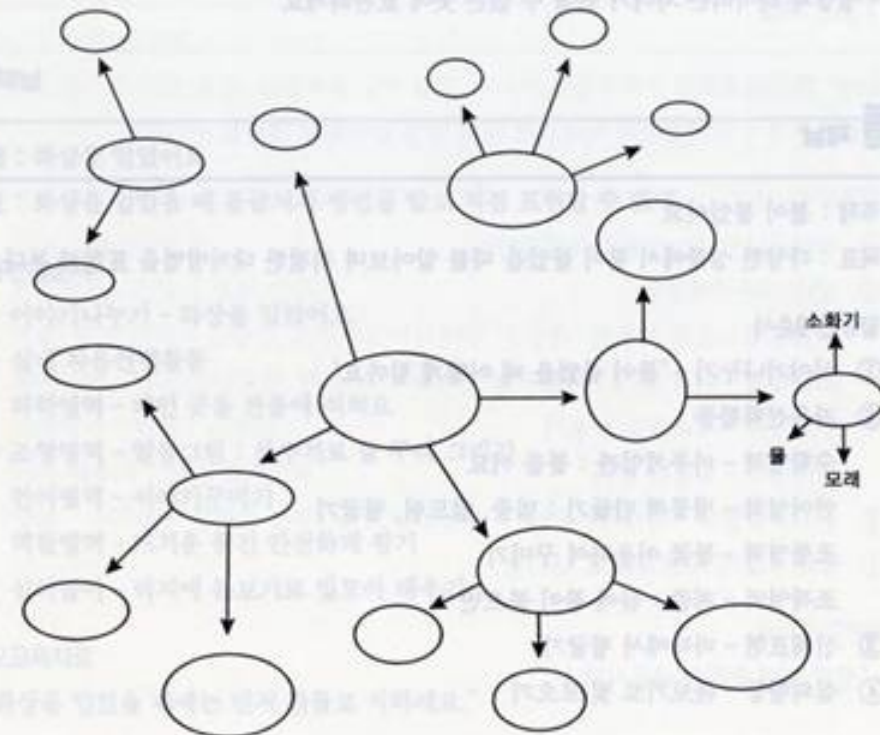
윤선화 · 한국안전생활교육회 부장

신현정 · 해관유치원 원감

아래의 글은 (사)한국안전생활교육회와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주최한 제1회 아동안전 학술 심포지움 및 워크숍의 자료집에 실린 글입니다.

- 프로그램 실시시간 : 9월 18일 - 9월 29일
- 주제 : 불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요.
- 목표 : 1.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다.
2. 불이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적절히 행동할 수 있다.
3. 불의 위험에 대해 알고, 불조심하는 태도를 기른다.

<주제 조직망>



첫째날

- 주제 : 불이 날 수 있어요
- 목표 : 불이 날 수 있는 화재의 원인에 대해 알고, 주의하는 태도를 기른다.
- 활동전개순서
 - ① 이야기나누기 - 불은 왜 날까?
 - ② '불'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 ③ 실내자유선택활동
 - 언어영역 - 화재원인 단어알기
 - 조작영역 - 퍼즐 : 불끄는 모습
 - 독서영역 - '불' 도서
 - 수학영역 - 숨은 그림 찾기 : 불이 날 수 있는 상황 찾기
 - ④ 동화
 - 성냥, 폭죽, 라이터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 부모교육자료
 - '성냥과 라이터는 자녀가 만질 수 없는 곳에 보관하세요'

둘째날

- 주제 : 불이 붙었어요
- 목표 : 다양한 상황에서 불이 붙었을 때를 알아보고 적절한 대처방법을 표현해 본다.
- 활동전개순서
 - ① 이야기나누기 - '불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 ② 자유선택활동
 - 수학영역 - 마루게임판 : 불을 꺼요
 - 언어영역 - 병풍책 만들기 : 멈춤, 엎드림, 뒹굴기
 - 조형영역 - 불꽃 이용하여 꾸미기
 - 조작영역 - 퍼즐 : 몸에 불이 붙으면
 - ③ 신체표현 - 바닥에서 뒹굴기
 - ④ 실외활동 - 돋보기로 빛 모으기

⑤ 동시 - 불이 붙었어요

- 부모교육자료
 - 자녀의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멈추고, 엎드린 후 뒹굴러서 끄게 하세요.

셋째날

- 주제 : 뜨거운 것을 피해요.
- 목표 : 뜨거운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뜨거운 것들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 활동전개순서
 - ① 이야기나누기 - 뜨거운 물건은 위험해요
 - ② 실내 자유선택활동
 - 조작영역 - 게임판 : 뜨거운 것을 피해요
 - 과학영역 - 온도재기 : 뜨거운 것, 찬 것
 - 조형영역 - 불꽃모양 연결하여 그리기
 - 언어영역 - 뜨거운 책 만들기
 - ③ 동극 - 만지지 마세요

넷째날

- 주제 : 화상을 입었어요
- 목표 :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직접 표현할 수 있다.
- 활동전개순서
 - ① 이야기나누기 - 화상을 입었어요
 - ② 실내 자유선택활동
 - 과학영역 - 데인 곳을 찬물에 식혀요
 - 조형영역 - 얼음그림 : 분수기로 물 뿌려 그리기
 - 언어영역 - 이야기꾸미기
 - 역할영역 - 뜨거운 물건 안전하게 잡기
 - ③ 실외놀이 - 먹지에 돋보기로 빛모아 태우기
- 부모교육자료
 - '화상을 입었을 때에는 먼저 찬물로 식히세요.'

다섯째 날

- 주제 : 연기가 나요
- 목표 : 화재로 인해 연기가 날 때 연기의 움직임에 정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다.
- 활동전개순서
 - ① 이야기나누기 - 연기가 나면 어떻게 알까?
 - ② 실내 자유선택활동
 - 과학영역 - 냄새분류하기
 - 언어영역 - 수수께끼 상자
 - 조형영역 - 찰흙그림 그리기
 - 수학영역 - 수대로 연결하기
 - ③ 게임 - '연기아래로 기어가기'
 - ④ 실외놀이 - 연기의 움직임 관찰하기
- 부모교육자료
 -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연기 아래로 기어가요.'

여섯째 날

- 주제 : 대피해요
- 목표 : 화재시 대피방법과 대피로에 대해 알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 활동전개순서
 - ① 이야기나누기 - 어떻게 대피할까?
 - ② 실내 자유선택활동
 - 조형영역 - 모래 이용해 '비상구' 꾸미기
 - 조작영역 - 미로 찾기 : 비상구를 찾아라
 - 수학영역 - 대피지도 만들기
 - 언어영역 - 암호문 풀기
 - ③ 신체표현활동 - 화재대피훈련
 - ④ 동화 - 불이 나면 밖으로 나가요
- 부모교육자료
 - '집안 대피계획을 세웁시다.'

일곱째 날

- 주제 : 신고해요
- 목표 : 화재시 신고방법에 대해 알고, 정확한 말로 상황을 표현할 수 있다.
- 활동전개순서
 - ① 이야기나누기 - 불이 나면 전화해요
 - ② 실내 자유선택활동
 - 조형영역 - 119숫자 이용하여 꾸미기
 - 수학영역 - 비밀숫자 찾기
 - 언어영역 - 안과 밖의 상황 알고 이야기하기
 - 역할, 쌓기 영역 - 전화기로 신고하기
 - ③ 노래 배우기 - 불조심
- 부모교육자료
 - '화재신고를 할 때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해요.'

여덟째 날

- 주제 : 소방서, 소방관
- 목표 : 소방서의 역할, 물건, 소방관에 대해 알고, 화재와 위급상황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 활동전개순서
 - ① 이야기나누기 - 소방서는 어떤 곳인가?
 - ② 실내 자유선택활동
 - 조형영역 - 소방서 물건 만들기
 - 역할, 쌓기 영역 - 소방서, 소방관놀이
 - 독서영역 - 빨간 불자동차, 삐삐!
 - 조작영역 - 퍼즐 : 소방관
 - ③ 노래 배우기 : 꼬마 불자동차
 - ④ 동화 - 수다쟁이 참새와 119정글 소방대원

아홉째 날

- 주제 : 불조심
- 목표 : 불에 대한 안전에 대해 회상하며 사고를 다양한 방법으로 재표상할 수 있다.
- 활동전개순서
 - ① 이야기나누기 - 불조심
 - ② 실내 자유선택활동
 - 조형영역 - 불조심 포스터 만들기
 - 언어영역 - 불조심 표어 짓기
 - 조작영역 - 불조심
 - ③ 동시 - 불을 꺼요
- 부모교육자료
 - '소방서와 소방관이 하는 일을 알려주세요.'

열번째 날

- 주제 : 소방서견학
- 목표 : 소방서견학을 통해 소방서와 소방관의 역할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 활동전개순서
 - ① 이야기나누기 - 소방서 가기 전 약속 정하기
 - ② 견학 - 소방비디오관람
 - 소화기사용
 - 소방차량 소개
 - 굴절차 타기
 - ③ 표상활동 - 견학일지 기록한 후 이야기나누기
- 부모교육자료
 - 자녀들은 부모님의 불조심하는 태도와 화재예방 행동을 모방합니다.

(1) 활동명 : 이야기 나누기 - 불은 왜 날까?

- 목표
 1. 화재의 원인에 대해 안다.
 2. 화재가 일어나는 원인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 활동자료
 - 그림자료(불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그림)
- 활동방법
 1. 불이 난 것을 본 경험이 있었는지 이야기 나눈다.
 2. 왜 불이 났는지 생각해 보며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
 3. 그림을 보며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을 찾아본다.
 - 성냥, 라이터 불장난
 - 전기 누전
 - 과일
 - 화기성 물건의 방치
 - 가스렌지
 - 담배불
 - 폭죽, 불꽃놀이
 - 기타: 천제지변(번개, 태양열)
 4. 불이 날 수 있는 물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이야기 나눈다.
 - 성냥, 라이터, 폭죽, 불꽃놀이 등 위험한 물건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 위험한 물건이나 상황은 어른들에게 곧장 알린다.

(2) 활동명 : 그림동화 - 성냥, 폭죽, 라이터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 목표
 -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는 물건들에 대해 알고 위험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다.
- 활동자료
 - 책, 실물환등기

< 평화내용 >

안녕하세요? 내가 오늘 친구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성냥, 라이터,

폭죽 그리고 불꽃같은 것들은 아주 조심해야 해요. 성냥, 라이터, 폭죽 같은 물건들은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성냥이나 라이터는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하지만 성냥과 라이터의 불꽃은 매우 위험하고 뜨거워요.

이 불꽃들은 불을 낼 수 있어요. 불이 나면 우리들은 불에 데일 수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불은 높은 빌딩,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 나무들도 태울 수 있어요.

성냥과 라이터는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일에 사용됩니다. 양초에 불을 붙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 담배에 불을 붙여 주기도 하지요. 또 우리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음식물을 태울 수 있는 모닥불을 피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성냥과 라이터는 어른들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우리처럼 어린아이들은 사용하면 안돼요. 성냥을 발견하면 곧장 어른들께 드립시다. 성냥과 라이터는 큰불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니까요.

불이 나면 아기들도, 어른들도, 우리 같은 어린이들도 모두 다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원이나 산에서 피워 놓은 불을 끄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꺼지지 않은 불은 산 속의 풀과 나무들을 태우고 많은 동물들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놀던 곳에서 떠나기 전에 피워 놓은 불이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폭죽들은 크고 신나는 소리로 우리를 즐겁게 해줍니다. 폭죽이 터지면서 나오는 불꽃들은 예쁜 모습으로 밤하늘을 밝혀 줍니다. 그러나 폭죽도 매우 위험한 물건입니다. 단지 몇 사람만 폭죽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압니다. 성냥, 라이터, 폭죽 그리고 불꽃과 같은 물건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이제 나와 약속해요. 절대로 성냥, 라이터, 폭죽, 불꽃들은 가지고 놀지 말아요. 이것들은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들려준 이야기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성냥, 라이터, 폭죽, 불꽃 장난을 하지 마세요. 불을 피우고 놓고 난 뒤에는 불이 꺼졌나 꼭 확인하세요. 성냥, 라이터, 폭죽, 불꽃들은 언제나 어른에게 드려요.

(3) 활동명: 퍼즐-멈춰요, 엎드려요, 굴러요.

■ 목표

몸에 불이 붙었을 때 불을 끄기 위해 멈추고, 엎드리고, 굴러야 함을 안다.

■ 활동자료

퍼즐자료(기호, 그림자, 그림, 단어 퍼즐조각)

■ 활동방법

1. 몸에 불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이야기 나눈다.

2. 기호를 보며 어떤 의미일지 추측해 본다.
3. 기호퍼즐과 연결되는 그림자 퍼즐을 찾아 붙인다.
4. 그림자에 맞는 그림을 찾아 붙인다.
5. 기호-그림자와 함께 의미하는 단어 퍼즐 조작을 맞춘다.
6. 완성된 퍼즐을 보며 몸에 불이 붙었을 때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4) 활동명: 게임-불꽃을 없애요.

■ 목표

1. 몸에 불이 붙었을 때의 대처방법을 알고, 실제로 표현해 본다.
2. 신속하게 몸을 움직여 몸에 붙은 불을 끌 수 있다.

■ 활동자료

불꽃모양, 신호악기, 고무줄 옷

■ 활동방법

1. 유아를 두 팀으로 나눈다.
2. 몸에 불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눈다.
 - 손으로 얼굴을 가린 뒤 바닥에서 뒹군다.
3. 게임방법을 이야기한다.
 - 고무줄 옷을 입는다.
 - 몸에 불꽃 모양을 부착한다.
 - 출발신호와 함께 걸어나간다.
 - 악기소리가 들리면 몸에 붙은 불꽃을 떨어뜨리기 위해 멈춘 뒤 엎드려서 뒹군다.
 - 불꽃을 몸에서 떨어뜨리면 되돌아온다.
4. 게임을 실시한다.
5. 게임 후 느낌을 함께 이야기 나눈다.

참고사항 : 몸과 불꽃이 너무 납작하게 밀착되면 잘 떨어지지 않으므로 불꽃을 부착할 때는 입체적인 자료로 부착한다.

(5) 활동명: 미술작업(조형)-불꽃모양 연결하여 그리기

■ 목표

1.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을 추측하여 표현할 수 있다.

2. 불의 위험성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 활동자료

불꽃모양 색상지(빨강, 주황), 풀, 도화지, 색연필, 싸인펜

■ 활동방법

1. 불꽃을 본 경험이나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2. 도화지에 불꽃 모양 종이를 붙이고, 생각한 상황을 연결하여 표현한다.
3. 완성한 그림을 친구들에게 소개하여 화재위험이 있는 상황에 대한 사고를 공유해 본다.

(6) 활동명: 동극 - 만지지 마세요.

■ 목표

1.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다.
2. 만지면 위험하고 뜨거운 것들에 대해 안다.

■ 활동자료

용판용 그림자료(아름, 소화기, 다운, 라이터, 성냥, 불꽃), 머리띠

■ 활동방법

1. 용판동화 '만지지 마세요'를 듣는다.
2. 등장인물과 대사에 대해 회상하면서 그림을 보며 함께 이야기 나눈다.
3. 동극에 필요한 소품을 의논하며 준비한다.
4. 역할을 나눈다.
5. 동극을 한다.
6. 맡은 역할을 소개한다.
7. 동극을 한 뒤 소감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동극내용 - 만지지 마세요>

아름 : 앓, 뜨거워! 아양.

소화기 : 아름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다운 : 촛불에 불을 붙이려고 성냥을 켜다가 그만 손을 데었어.

소화기 : 저런, 성냥은 아이들이 만지면 위험한 물건인데.

라이터 : 맞아, 촛불은 어른들이 켜는거야. 아이들이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성냥 :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불꽃 : 나처럼 불꽃이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누가 사용해야 안전한지 이야기 해주자.

성냥, 라이터 : 그래, 좋아 좋아.

불꽃 : 애들아, 안녕! 나는 불꽃이야. 난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고, 음식도 익혀서 맛있게 먹게 해 주지. 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큰 힘이 있어.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아주 위험해.

인형이나 장난감을 태울 수도 있고, 유치원이나 집, 친구들을 타게 해서 다치게 할 수 있단다. 나를 함부로 만지면 위험해. 아이들은 나를 함부로 만질 수 없어.

그럼, 내 친구를 소개해 줄게. 성냥아!

성냥 : 안녕! 나는 성냥이야. 난 생일축하파티 때 생일 케익의 예쁜 촛불을 밝혀주지. 그리고 '혹' 불면 신기하게 불이 꺼지기도 해.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아주 위험해. 만약 잘못해서 카펫에 떨어뜨리면 불이 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만질 수 없어. 나를 보게 되면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께 가져다 드려야 돼. 그럼 내 친구를 소개해 줄게.

라이터야! 나와봐.

라이터 : 안녕, 나는 라이터야. 난 아빠가 담배 피우실 때 많이 사용해서.

내 몸엔 석유라는 것이 있는데, 나를 만지다 떨어뜨리면 옷에 불이 붙을 수가 있어. 나를 함부로 만질 수 없어. 나를 보면 아빠, 엄마께 드려야 해.

그럼, 또 다른 내 친구를 소개해 줄게. 난로야! 나와라.

난로 : 안녕, 나는 난로야! 손과 발이 시린 겨울에 나를 옆에 두면 아주 따뜻하단다. 그런데 춥다고 난 너무 가까이 하면 다칠 수 있어. 내 옆에서 장난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장난감을 내 가까이 두면 장난감이 타서 불이 날 수도 있단다. 나를 함부로 만질 수 없어. 너희들이나 장난감 모두 내 옆에 너무 가까이 오지 않는 게 좋아.

소화기 : 너희 모두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하지만 사람들이 너희들을 잘못 만져서 위험해질 때는 내가 필요하지. 나를 잡고 불이 난 곳에 쓰면 불이 꺼진단다. 그러니까 난 항상 불꽃 친구들 옆에 있어야 돼.

아름 : 고마워, 불꽃 친구들아. 이제부터 함부로 너희들을 만지지 않을게.

다운 : 너희들을 보면 어른들께 꼭 말씀드릴게.

불꽃, 성냥, 라이터, 난로, 가스렌지 : 그래, 그래. 이제부터 위험한 물건이 불꽃 가까이 오게 하거나 우리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돼. 약속!

(7) 활동명: 과학- 데인 부분을 찬물에 대어요.

■ 목표

뜨거운 것에 데었을 때(화상을 입었을 때)는 제일 먼저 찬물에 화상부위를 대어야 함을 안다.

■ 활동자료

붉은 색 물감

■ 활동방법

1. 뜨거운 것에 데인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 나눈다.
2. 화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본다.
 - 흐르는 찬물에 화상부위를 댄다.
 - 화상부위를 문지르지 않는다.
 - 옷을 벗지 않는다.
 - 약이나 기타 음식들을 바르지 않는다.
 - 환부에 얼음을 직접 올려놓지 않는다.
3. 붉은 색 물감을 손가락이나 팔등에 묻힌다.
4. 재빨리 흐르는 차가운 물에 대어 물감(화기)을 댄다.

참고사항 : 유아들이 물감을 지우기 위해 문지르지 않도록 하고, 흐르는 물에 대어 물감이 서서히 지워지도록 한다.

(8) 활동명: 언어-수수께끼 상자

■ 목표

1. 화재와 화상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2. 화재와 화상의 위험으로부터의 대처방법을 표현할 수 있다.

■ 활동자료

수수께끼 상자, 수수께끼 카드

■ 활동방법

1. 수수께끼를 낼 사람을 정한다.
2.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이 카드를 선택하여 상자에서 꺼낸다.
3. 수수께끼 카드의 앞면에 있는 문제를 내면 다른 사람이답을 말한다.
4. 정답을 맞추면 수수께끼 카드를 펼쳐 정답 그림을 보여준다.

수수께끼의 예 : ① 불이 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 빨리 어른들에게 이야기해서 알려 드려요.

②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러 오는 사람은?

- 소방관

③ 문을 열어 보지 않고 불이 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 문이 뜨거운지 손가락 2개로 짚어봐요. 연기가 문틈으로 들어 오는지 살펴봐요.

④ 재빨리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을 1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 물을 뿌려요. 모래를 덮어요. 담요를 덮어요.
소화기를 사용해요.

⑤ 몸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멈춰요. 엎드려요. 뒹굴어요.

(9) 활동명: 게임- 연기아래로 기어가요.

■ 목표

1. 화재로 연기가 날 때 신속하게 연기 아래로 기어가야 함을 알고 행동할 수 있다.
2. 열과 연기의 움직임을 알고, 화재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 활동자료

연기처럼 꾸민 비닐(비닐에 숨을 불이고 진회색과 검은색 락카를 뿌린다). 문 모양의 가림판

■ 활동방법

1. 연기가 들어오는 문 밖으로 나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눈다.
 - 문틈을 수건이나 형철 등을 이용해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 방문의 손잡이를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모아서 살짝 짚어본다.
 - 손잡이가 차가우면 문 뒤에서 살며시 문을 연다.
 - 코와 입을 손으로 막고 바닥에 무릎을 댄 다음 재빨리 문밖으로 기어나간다.
2. 두 팀으로 나눈다.
3. 출발신호와 함께 출발하여 가림판을 문이라 생각하고 손잡이를 확인하는 행동을 해 본다.
4. 문을 연 다음 코와 입을 막고 비닐 연기 밑으로 재빨리 기어나간다.
5. 비닐 연기 밑을 끝까지 통과하면 게임이 끝난다.
6. 게임한 느낌을 평가한다.

(10) 활동명: 언어-암호문 풀기

■ 목표

1. 암호문을 푸는 과정을 통해 화재시 문제해결력을 키운다.
2. 불이 났을 때는 실외로 대피해야 함을 안다.

■ 활동자료

암호문 프린트, 필기도구

■ 활동방법

1. 암호가 의미하는 글자를 찾는다.
2. 찾은 글자를 빈칸에 기록한다.
3. 완성된 내용을 읽어보며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눈다.

(11) 활동명: 대피해요(화재대피훈련)

■ 목표

1. 화재시 비상구를 찾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2. 화재의 위치를 알고 안전한 대피경로를 찾아 대피할 수 있다.

■ 활동자료

유치원 평면도 및 대피로를 표시할 지도

■ 활동방법

1. 5-6명씩 팀별로 나눈다.
2. 각 팀마다 불이 난 장소에 불꽃 모양이 표시된 유치원 내부지도를 준다.
3. 불이 난 장소를 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길과 유치원 밖으로 나간 뒤 팀원이 모두 모일 장소에 대해 의논한 다음 표시해 놓는다.
4. 화재경보기 소리나 교사가 '불이야'하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팀원과 같이 계획한 대피로에 따라 신속히 이동한다.
 - 밀거나 뛰지 않는다, 놀이하던 것을 그대로 두고 나간다.
 - 실내화는 신은 채로 나간다.
5. 모이기로 약속한 장소에서 모두 나왔는지 인원 파악을 한다.
6. 모든 팀들이 다 대피를 했으면 다시 교실로 들어와 화재대피훈련을 평가 해본다.
 - 늦게 모인 이유, 대피로의 적합성, 대피시의 안전정도

참고사항 : · 대피훈련을 하기 전에 비상구를 찾아보고, 비상구의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 사전활동으로 불이 났을 때 주의해야 할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눈다.

- 아파트에 살 경우에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비상구)으로 대피한다.
- 실내에 갇혔을 때는 창문을 열고 창 밖으로 수건, 옷 또는 양손을 흔들며 살려달라고 외쳐야 한다.
- 옷장, 침대나 책상 밑에 숨지 않는다.
- 집밖으로 대피한 후에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12) 활동명: 수학-숨어있는 숫자 찾기

■ 목표

1. 119 숫자에 관심을 갖는다.
2. 소방서 전화번호는 119임을 알고 꼭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해야 함을 안다.

■ 활동자료

프린트 자료, 색연필, 싸인펜

■ 활동방법

1. 프린트 자료에서 '1'과 '9'자를 찾는다.
2. 찾은 숫자를 색칠한다.
3. 찾은 숫자를 모두 색칠한 뒤 완성된 모습을 살펴본다.
4. 119 숫자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13) 활동명: 이야기 나누기-신고해요

■ 목표

1. 화재시 119에 신고해야 함을 안다.
2. 화재 신고할 때 정확히 주소와 전화번호를 말할 수 있다.

■ 활동자료

공중전화 모형, 전화기, 그림자료

■ 활동방법

1. 불이 나면 소방서에 연락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불이 나면 몇 번으로 전화해야 할까? 119

-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할까? 이름, 전화번호, 주소
 - 집에 불이 났을 때 집 밖으로 나와서 공중전화나 이웃집 전화를 이용해 연락한다.
- 역할을 나눈다.
 - 공중전화모형을 이용해 전화해 본다.
 - 수화기를 들고 긴급통화 버튼을 누른다.
 - 119를 정확히 누른다.
 - 소방서 안내원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말해준다.
 - 불이 난 상황을 설명해준다.
 - 소방서 안내원이 전화를 끊기 전에 전화를 끊지 않는다.
 - 전화해 본 뒤 느낌을 이야기 나눈다.
 - 119에 장난전화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이야기 나눈다.

(14) 활동명: 불조심 포스터 만들기

■ 목표

- 불조심과 관련된 경험과 사고를 재표상할 수 있다.
- 서로의 사고를 공유하며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 활동자료

4절크기 도화지, 꾸밈자료(미술영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활동방법

- 화재안전교육에 관련된 VIDEO를 본다.
- 불조심해야 하는 이유와 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포스터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한다.
- 팀(5-6명정도)을 구성한다.
- 각 팀별로 불조심과 관련된 주제의 표어를 정하고 관련 내용의 포스터를 만든다.
- 완성된 포스터를 비교해 보며 서로의 사고를 공유한다.
- 포스터를 붙여야 할 곳을 결정하여 부착한다.

확장활동 : 불조심 표어 짓기 활동을 사전 혹은 사후에 실시하면 불조심에 대한 사고를 구체적으로 재표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15) 활동명: 노래-불을 꺼요

■ 목표

불을 끌 수 있는 적 절한 방법을 안다.

■ 활동자료

노랫말 자료, 불꽃그림, 물·소화기·모래그림

■ 활동방법

- 노랫말에 해당되는 그림을 보여주며 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 노랫말 자료의 빈 부분은 종이에 붙여 놓고 각 연의 4행 의성어를 보고 불을 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추측해 본다.
- 노랫말을 읽으며 그림자료를 탈·부착하여 붙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 '엄지 어디있소' 노래의 음에 맞추어 '불을 꺼요' 노래를 불러본다.
- 질문-대답 형식으로 노래를 불러본다.

불을 꺼요

무엇이 타고 있나요?

무엇이 타고 있나요?

쓰레기요 쓰레기요

(물로 꺼요 물로 꺼요) → 빈 부분

짜짜짜 짜짜짜

무엇이 타고 있나요?

무엇이 타고 있나요?

난로요 난로요

(소화기로 꺼요 소화기로 꺼요)

칙칙칙 칙칙칙

무엇이 타고 있나요?

무엇이 타고 있나요?

나뭇잎이요 잔디밭이요

(모래로 꺼요 모래로 꺼요)

툭툭툭 툭툭툭

무엇이 타고 있나요?
무엇이 타고 있나요?
불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요
(불조심 불조심)

(16) 활동명: 소방서 견학

■ 목표

1. 소방서와 소방관의 역할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2. 소방서와 소방관에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봄으로써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할 수 있다.

■ 활동방법

1. 소방서에서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2. 소방서에서 하는 일, 사람들, 물건들을 살펴본다.
3. 소방서를 다녀온 뒤 견학기록지를 통해 경험을 표상해 본다.

(17) 활동명: 동시 - 불이 붙었어요.

■ 목표

몸에 불이 붙었을 때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

■ 활동자료

동시판, 인형, 불꽃

■ 활동방법

1. 인형을 이용해 동시 내용을 들려준다.
2. 동시판의 글씨를 보여 주며 '멈춰요! 엎드려요! 굴러요' 부분에서는 인형을 그 모습대로 움직이며 유아들이 말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한다.
3. 교사-유아, 유아-유아가 질문-대답 형식으로 동시를 읊어 본다.

< 동시 >

멈춰요! 엎드려요! 굴러요!

불이 나면 내 옷에
불이 붙을 수 있네

이럴 땐 어떻게?
멈춰요! 엎드려요! 굴러요!

내 옷에 붙는 불
끌 수가 있네

불이 나면 내 몸에
불이 붙을 수 있네

이럴 땐 어떻게?
멈춰요! 엎드려요! 굴러요!

내 몸에 붙는 불
끌 수가 있네

(18) 활동명: 미술작업 - 모래그림 그리기

■ 목표

비상구의 의미를 알고, 비상구 표시에 관심을 갖는다.

■ 활동자료

비상구 종이판, 초록색 모래, 풀, 흰도화지, 집게

만드는 방법 (비상구 종이판):

1. 두꺼운 도화지 위에 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거나 코팅한다.
2. 비상구 표지판을 두꺼운 도화지 위에 놓고 칼로 판다.

■ 활동방법

1. 비상구 표지판을 보여 주며 본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 나눈다.
(모양, 색깔, 의미, 비상구가 있는 곳)
2. 흰도화지 뒤에 이름을 쓴다.
3. 도화지 위에 비상구 종이판을 놓고 집게로 고정시킨다.
4. 종이판의 파진 부분에 풀을 바른다.
5. 초록색 모래를 뿌린다.
6. 남은 모래를 털어낸다.
7. 종이판을 떼어내고, 완성된 비상구 표지판을 살펴본다.

참고사항 : 비상구 종이판에 계속 풀이 묻으면 모래그림이 정확히 찍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종
이판 한 장을 3명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장을 준비한다.

(19) 활동명: 이야기 나누기 - 연기의 움직임 관찰하기

■ 목표

1. 연기는 위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을 통해 안다.
2. 연기는 좋지 않은 냄새를 가지고 있음과 유독가스로부터 기도 손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안다.

■ 활동자료

물, 폐휴지, 성냥 혹은 라이터

■ 활동방법

1. 모래놀이터에 구덩이를 판다.
2. 구덩이 속에 폐휴지를 담아둔다.
3. 유아들을 모래 놀이터 바깥 쪽으로 나가 있도록 한다.
4. 폐휴지에 불을 붙인다.
5. 불과 연기의 움직임, 색깔, 냄새 등을 관찰한다.
6. 물과 모래를 뿌려 불을 끈다.
7. 관찰한 것을 그림으로 표상해 본다.

(20) 활동명: 언어 - 궁금해요 카드(화재 관련 단어)

■ 목표

1. 화재와 관련된 단어와 의미를 안다.
2. 화재와 관련된 단어에 관심을 갖고 기록해 볼 수 있다.

■ 활동자료

궁금해요 카드, 화재 관련 단어 카드, 필기도구

■ 활동방법

1. 화재 관련 단어 카드를 보여준다.
2. 카드에 기록된 단어의 뜻을 알아본다.
3. 단어카드를 보고 '궁금해요' 카드에 따라 써본다.

(21) 활동명: 언어 - 불이 날 수 있는 물건 그림 찾기

■ 목표

화재 원인이 되는 상황을 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에 관심을 갖는다.

■ 활동자료

불꽃모양 6개, 집안그림 상황 삼각대

■ 활동방법

1. 집안그림을 살펴보고 어떤 것들이 그려져 있는지 이야기 나눈다.
2. 그림내용 중 불이 날 위험이 있거나 뜨거운 물건을 찾아 불꽃을 붙인다.

일본 이즈미 보육원의 사례 (부모를 지원하는 이념과 실천)

출처 - 清水登實 (1992) 부모를 지원하는 이념과 실천 - 이즈미 보육원의 경우
教育, 550호, 63쪽-70쪽

번역 - 이혜영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 오산대학교 강사

이즈미 보육원의 전신은 공동보육소이다. 주지하듯 공동보육소는 입학 연령제한이나 정원 부족 등의 보육시설이 불충분해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어머니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말하자면 손수 만든 미니 보육소였다. 경위에 관해서는 생략하지만 이 미니 보육소를 만든 사람들이나 그 지역의 많은 주민협력과 노고, 그 위에 오사카부 아래 광범위한 사람들의 원조와 지원으로 인가 받은 정규보육원으로까지 발전된 것이 이즈미 보육원이었다. 관료기구의 말단에 있지만 발언권이 큰 특정 개인도 갖지 않은 것이 특색. 민간 보육소로, 1977년 4월에 개원했다.

1. 보육원은 부모와 아이의 시설

이곳의 설립사정은 보육연구자로서 내가 이전부터 품고 있던 가설을 검증하기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앞으로 보육원의 보육이론 구축하는데 처음부터 그 인적 구성에서 부모(보육원 아이의 가정), 보육원 아이(아이), 직원(보육원)이라는 3자를 대등하게 위치를 부여하여 구상·총괄 해야 한다는 가설이 있다. 보육은 아이들과 보육자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 이미지되어 있다. 보육교사 이외의 직원이나 부모는 그 배후에서 보육을 지탱하고 주변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것이 지금도 매우 일반적 경향이다.

일하는 것과 내 아이를 키운다는 것, 어느 쪽이나 본래 모순되지 않는 지극히 인간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이 두 가지가(일하는 것과 내 아이를 키운다는 것) 큰 모순이다. 그 모순을 해결하는 장으로 보육원이 떠오른다. 현실의 모든 사회적 관계가운데서 모순된 요구를 가지고 그것을 모든 사회적 관계의 변혁에 의해 실천적으로 해결해 가는 형태의 하나로 <보육과정>을 포착하면 <보육원의 보육>은 부모도 그 활동주체로 위치가 부여되

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유치원, 학교와 보육원이 가장 다른 것은) 보육원은 아이와 부모를 받아들이는 곳이며 부모와 아이가 다니는 장소이다. 오로지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를 받아들이는 시설로 불린다. 부모는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고 저녁에는 아이와 귀가하므로 길지는 않지만 보육원이 매일 받아들여 마주 대하는 것은 부모와 아이입니다>라는 원장의 발언에 이와 같은 사고방식의 반영과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즈미 보육원은 아침에 문여는 시간(오전 7시 반)부터 저녁에 문닫는 시간(오후 6시 반)까지 전체를 정규직원의 시차근무로 이루어지는 일반 보육으로 간주했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 비상근 직원은 중간시간대에 들어오게 한다. 아침과 저녁 보육은 부모와 얼굴을 맞대는 짧고 귀중한 시간대이므로 당연히 정규직원이 근무한다.

그것은 부모에게 보육원을 가정과 직장의 단순한 중계점으로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 아침에는 <가령 집에서 부부싸움이나 부모와 아이가 말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육원에 아이를 보내어 보육원에서 <자, 오늘 하루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힘내어 활동하려고>나간다. 저녁에는 <다녀왔다! 돌아와서 마음이 편안해지는>장소에 있고 싶다. 과연 보육전문가의 손에 위탁하니 이처럼 상쾌한 아침이 되는구나, 이토록 온화하고 포근해지는 저녁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목표 삼았다..

2. '아이를 위해서'가 절대 아니다.

현대에 <아이를 위해서>라고 말하면 어른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을 우선시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비난받을지도 모르는 풍조가 강하다. 그런데 이즈미 보육원에서는 아이만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고 부모도 아이도 거기서 일하는 직원도 3자가 대등하게 소중히 해서 항상한다고 감히 말한다. 어떠한 과제라도 직면하면 3자 가운데 누군가가 희생되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3자 각각의 조건이 약간이라도 전진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길을 찾아간다는 사고방식을 취한다. 아이를 위해서라고 말해도 다른 누군가가 희생되는 것은 정말로 아이를 위하는 것이 될 것인가 의문으로 여긴다.

예를 들면 <저녁 보육시간을 30분 연장하는 것>이 과제로 되었을 때 부모, 아이, 보육자에게도 플러스를 가져오는 것 같은 해결이 나오게 되지 않는가를 충분히 토의했다.

보육시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이에게 보육원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 자체로 볼 때 오후 간식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다. 텔레비전은 보지 않는다. 친구들과 느긋하고 유유히 노는 등 기본적인 생활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으로서 결코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곤란한 것은 식사시간이 늦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보육원에서 이 이상 보육시간을 연장한다면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했다. 오후 6시 반까지 보육원에 있다면 오후 5시 반쯤 저녁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가 1, 2시간 지나서 목욕하고 9시에 잘 수 있다. 그런데

부모가 <선생님, 그런 것은 그만 두세요>라고 말했다. <아버지나 형제 몫까지 보장해준다면 고맙겠지만 보육원의 아이에게만 식사 제공한다면 부모는 보육원에서 돌아와 다른 가족식사를 꼭 챙겨주어야 한다. 그 아이만 따로 식사한다면 오히려 무리이다>라는 것이다. 게다가 저녁식사 비용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 결국 보육원에서 식사를 2번하지 않지만, 오후 간식과 저녁 보육이라는 기본적인 생활부분을 충분히 하는 것(지금까지 빠듯한 시간에 조바심 나게 맞이하러 온 부모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아이와 얼굴을 맞대는 것)으로 아이에게도 보육시간 연장에 플러스를 보태는 것이 되었다. 부모도 희망대로 보육시간이 연장되어 납득. 보육노동자인 직원은 여러 가지 지혜를 서로 내어 <아침 일찍 출근하는>날은 반나절 근무(오전 7시부터 오후 1시 반)로 1주일 전체 노동시간이 짧아졌다. 그래서 3자 각각 납득되었다. 이것이 이즈미 보육원의 문제해결의 스타일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항상 결과로서 답이나 해결을 구하는 것에 조급하지 않고 <문제 정하는 방법>쪽에 상당한 마음을 기울였다고 한다. 직원회의도 <의제를 정하는 방법>을 중시한다. 개개의 문제를 직접 의제로 하지 않고 토의를 통해서 직원 모두가 한 걸음 두 걸음 전진시켜서 당 문제도 일정 해결에 도달하도록 의제를 설정하려 한다.

3. 주도적 역할은 보육 전문가 측에

또한 개원 전 보육원 설계 진행과정에서 일어났다. 원장이 자신의 구상을 설계도로 그려 나타내려하면 젊은 설계기사는 <그럼이나 설계도는 그리지 말고 말로 설명해주시시오. 그것을 형태로 하는 것이 건축전문가로서 우리들의 일, 역할입니다>라고 말했다.

<보육원은 단층건물이 바람직하지만> <어쨌든 단층 건물이 좋은가> <2층 건물인 보육원의 실정을 들으면 보육원내에 계단 위, 아래로 직원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버려서>라고 하는 말 다음에 제시된 설계는 홀이 탁 트여 통풍이 잘되었다. <이것으로 1층과 2층 공간사이가 동떨어진 것은 꼭 막을 수만은 없다>고 한다. 실제 개원 후 충분히 그 의도가 납득되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몇 가지 있어서 전문가 손에 맡기자 이와 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바람, 기대, 희망, 요구가 구체화되어 실현되는 것과 전문가가 전문가다운 것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부모는 보육전문가가 아니다. 이즈미 보육원의 부모 가운데 직업이 교사나 보모인 사람이 매우 많지만 그래도 보육원에는 부모로서 올뿐이지 결코 학교 교육이나 보육전문가로서 아침저녁으로 아이를 보내고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원장은 <부모의 요구에 대해 나쁜 요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바른 요구, 잘못된 요구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흔히 말한다.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의 요구나 바람은 전부 정당할 뿐이다. 다만, 현대사회의 왜곡을 반영해서 그 표현이 귀에 거슬리거나 심정을 거슬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 보육전문가를 빠뜨린다면 자기들의 요구나 바람은 이러한 것이었던가 라고 납득할

수 있는지 어떤지가 보육전문가의 역량을 질문 받는 것이라고 말하게 된다.

4. 부모의 용석부림을 둘러싸고

<보육원이나 보육교사에게 어디까지 용석을 부리는 것이 좋은가?>라고 자주 질문 받지만 이즈미 보육원에서는 전부 용석부림도 좋다고 생각한다 <용석부림도 좋다. 용석부리는 것이 왜 나쁜가?>라고 원장은 잘라 말한다. 거기에는 부모도 보육교사도 서로 일하는 사람끼리 있는 것의 양해가 기초이다. 계속 일하기 위해서 보육원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다만 부모는 보육교사도 일하는 사람인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고 생각한다.

보육원 졸업식 후에 열린 다과회에서 막내아이를 졸업시키는 3세 어머니는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이미 용석 받을 만큼 용석 받게 해왔다>고 태연히 말했다.

(이 부모는 초등학교 교사부부였다. 덕분에 10여년간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지냈다) 직원들은 일을 그만두지 않은 것을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기뻐하고 큰 박수를 보냈다.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게 하지 않는다. 계속 일할 것을 격려한다. 그것은 어머니가 사회인으로서 인간적 성장이 아이의 성장에 플러스가 된다는 생각을 뒷받침한 것이다. 사회에서 일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으로 어머니 자신이 인간으로서 성장한다. 민주적인 사고 방식이나 태도, 사회구조의 이해, 자기 일이 사람들에게 대한 역할이나 지역과의 관계 등이 몸에 밴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계속 일한다는 자세, 아이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교육적 의미를 가져온다. 그것을 위해 약간 용석 부리는 데가 없다는 것은 지금의 세상에서 생활해갈 수 없다.

그럼에도 용석부린다고 해도 한도가 있는 것을 이때까지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여름날 보육원에서 아침식사를 시험해 보았다. 2주간은 부모와 어린이로 다음 2주간은 어린이만으로 희망자에게 아침을 실비로 제공했다. 메뉴는 국 한 그릇, 야채 한 접시이다. 젊은 부모들은 <이것뿐?> <무언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것으로 좋지만 부족하다면 병조림이라도 가지고 왔으면...> 그런데 9월이 되어 그후 어떻게 하는가를 토의한 결과 아침식사는 가정의 역할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즉시 식욕이 없는 아이도 있어서 간단한 아침식사 도시락을 지참하면 보육원에서 식사하기로 했다. 지금도 때때로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아이가 있다.

5. 직장과 집이 가까운 것은 유리한 조건

이즈미 보육원에서는 <보육원은 계속 일하며 자녀 양육하는 사람들의 '친정'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용석부림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지 않는가?>

첫째, 일상생활 활동을 중시하는 보육관과 무관하지 않다.

둘째, 이즈미 보육원은 오사카부에 인접한 시에 있지만 직원은 1, 2명을 제외하고 때로는 직원 모두가 보육원이 인접한 시민이다. 직장주거지가 가깝다. 가장 좁은 면적에 가장 많은 시를 갖고 있는 오사카부에서 이것은 아마 드문 일이라 생각되지만 이것이 유리한 조건이 된다.

〈1시간이라도 마중이 늦어서 엄하게 꾸지람들을 것을 각오하고 조심조심 보육원으로 아이를 마중 나왔지만 '아버지도 힘들군요' 라고 오히려 위로 받았다. 그때는 정말로 기뻐다〉는 이야기가 더러 있다. 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으면 간혹 사고가 있어도 그렇게 안전부절하지 않고 〈대범하고 느긋하게〉있을 수 있다. 그래서 차례로 지각하는 사람이 늘어 난다고 하나 이즈미 보육원에서 보고 있는 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지각해서 불평을 들을 것 같기 때문에 보육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되는 편이 우리들에게는 두렵다.

직장과 집이 가깝다는 유리함은 결코 마중하는 일만이 아니다. 예를 들면 늦지 않지만 직원도 보육원이 있는 같은 지역의 주민이므로 부모를 지탱하기 쉬운 면이 여러 가지 있는 것만이 아니라 거꾸로 부모에게 지탱 받는 직원이나 일도 한편으로는 제법 많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렇게 조건이 좋은 형편에 직원이 보육원 가까이에 살고 있는가? 직원을 채용할 때 인사책임은 지는 이사회가 응모자를 먼저 면접하고 그 후 이사회와 응모자 전원이 간담회를 갖는다. 그것만이 아니라 특히 마이너스면이 눈에 띄는 사람이 없는 한 결과적으로 누구를 채용할 것인가 선발에 난처해지고 만다. 어쩔 수 없이 직원집단의 연령구성을 배려하는 외에 보육원 가까이에 사는 사람 쪽으로 채용하는 정도이다. 〈일상생활을 소중히 한다〉는 보육관은 보육자가 갖는 기능의 기량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육(자)의 전문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이미 이야기했다.

더욱이 이즈미 보육원의 직원은 결혼하면 같은 단지의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신혼부부를 담입학급의 부모가 중심이 되어 친척의 경사처럼 보육원을 열어서 축하한다. 이윽고 아이가 태어나면 집으로부터 가까운 보육원인 이즈미 보육원에 들어온다. 늘 7.8명의 직원 자녀가 다니고 있지만 직원 자녀가 있는 것 또한 플러스가 된다. 이곳 직원은 다른 사람의 아이도 자기 아이도 차별하지 않는 것 같다고 실감하기 쉽다. 직원 자녀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면 그것은 그 원인이 아니라 기존 〈모순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그 뿌리를 문제로 한다. 게다가 직원은 〈자기 아이도 맡기고 싶은 것 같은 보육을 한다〉는 것이 스스로의 현실과제이다.

6. 일상생활 활동을 소중히 하는 보육의 파급효과

나는(우리들은) 보육원의 보육활동을 크게 일상생활 활동과 의도적(체계적) 교육활동의 2

가지 분야로 생각한다. 예를 들면 〈놀이〉를 마음속에 그려보면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아이의 보육원 활동의 대부분은 어느 분야의 활동으로든 알려진다.

이즈미 보육원에서는 지금까지 전자 쪽을 중시해왔다. 이것은 보육원 생활에서 모든 활동을 가능한한 前者 형태로 행한다. 생활습관까지도 교육과정화하는 생각이 보육계에 강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의문스럽다. 의도적, 체계적이 아니고 우발적이지만 생활의 필연성을 통해 몸에 익히는 것이 영유아기에는 몸에 배기 쉽고 또한 잘 정착하고 그것이 생활문화의 존재양식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각각 생활의 필연성을 중시하는 것이므로 부모에 대해서 자기의 일상 삶의 방식이나 육아행위를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판단으로 정하고 행동하며 자기가 책임지도록 하는 이유가 된다.

〈선생님, 1주일에 1번쯤은 칫솔을 집에 가지고 가서 깨끗이 씻어 소독해주는 편이 좋아요〉라고 어머니 한 분이 말했다. 이즈미 보육원에서는 〈그것 좋네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면 좋아요〉라고 된다.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학급에서 정해 모두 그렇게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중에는 큰 수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므로 학급 규칙으로 해버리면 점검해서 지키지 않는,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대응해야 한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좋을 거라면 원래 학급규칙으로 하는 이유는 없다.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좋아요 라고 이유를 말해서 납득해 실행하도록 권하게 하는 것이죠〉라고 하는 게 문제이다. 보육원은 집단생활의 장이므로 모두가 정해서 모두 실행해야만 하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다. 그러자 〈이즈미 보육원에서는 아무 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은? 복장은? 확실히 아무래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아이가 걱정되는 행동에 관해 부모에게 '00해요'라고 말하기 보다 먼저 집안사정을 물어 본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좋고 나쁨 이전에 과연 그런 이유였던가를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의외로 많다.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자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할 수 있을까를 확실히 생각해서 부모에게 제시한다. 그 경우에도 적어도 몇 가지(하는 방법)를 보여주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잘 배웠다. 작년 연말에 총괄회의에서 1세 아이반의 정리 가운데 일부이다.

어떤 특정한 〈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그대로 한다는 것은 부모를 육성하지 않는다. 일이 잘되어 나가면.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고민을 타인을 맡겨버린다.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가르쳐 준 사람의 탓으로 넘기므로 당사자인 본인은 홀가분하다. 그러나 자기 삶의 방식, 인생의 구축을 그런 형태로 진행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들은 부모자신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도달한 결론을 존중한다. 그것이 조금 우습지만. 만약 정말로 우습다면 어쨌든 모순이 확실히 나올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그때 그 사실을 통해서 원조할 수 있다면 좋다. 그 편이 납득하기 쉽다. 육아력이 높아진다. 일찍이 보육계에 생활점검표가 유행한 때에도 이즈미 보육자집단은 이것이 좋지 않다고 서들

러 가망이 없다고 단념했다.

많이 요구하지 않지만 의식해서 생활하는 부분을 반드시 하나는 갖도록 추천한다. 우리들은 어느 한도는 넘지 않고 그 직전에 알아차린다는 회복력을 중시한다.

그렇다하더라도 이즈미 보육원의 아이들은 (내 경험에 바탕을 둔 느낌으로) 보육원 생활에서 규칙위반을 별로 하지 않는다. 무서운 얼굴과 큰 소리로 꾸지람해야만 하는 것이 별로 없다. 지켜야만 하는 규칙이 대단히 많기 때문인지 모르나 그것 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7. 집단보육의 <집단>이란?

언제부터가 <가정보육> <집단보육>을 견주어보게 되었다. 그러면 그 집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아직까지 다양하다. 우리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질 문제라는 측면에서 느긋하게 포착하려한다. 단순한 단체가 아니다. 이른바 <집단 만들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보육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립을 돕는 연대>와 <연대 바퀴를 두텁고 강하며 폭넓게 하는 자립>을 자동차의 두 바퀴처럼 매우 좋은 인간집단을 형성하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절실히 생각한다. <연대 없는 자립>은 고립에 지나지 않는다. 보육원에서는 <고립된 부모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큰 과제이다. <자립 없는 연대>도 곤란하다. 한때 <빨간 신호등에서 모두가 건너면 무섭지 않다>는 말이 유행했지만 나는 매우 싫었다. 저것은 <빨간 신호등에서 예컨대 모두가 건너다면 나는 빨간 신호등에서 건너지 않는다는 것은 무섭다>는 의미밖에 아무래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다.

부모와 보육원(직원)이 아이들 사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늘어서서 함께 키우는 것이 보육원이라는 것도 흔하다. 때로는 아이를 옆에 하고 어른끼리 인간적 교제가 있어도 좋지 않는가. 보육원의 동창회라면 부모 동창회의 취지가 크다지만 이즈미 보육원의 부모들은 재원 중에 부모모임을 자주 연다. 클래스단위의 자녀양육 중에 부모에 의한, 부모를 위한 부모의 클래스모임(물론 아이도 참가하지만)이다.

클래스 멤버에 드나들면 환송, 환영회, 어머니 망년회나 아버지 신년회(이때 아이를 빼놓는 일이 많다), 여름에 나이 어린 클래스는 풀(pool)놀이와 잠담모임, 나이 든 클래스가 되면 하이킹이나 캠프 등이다. 여기에 보육원 건물의 이용 자유도가 큰 사립보육원이라는 유리한 조건이 있다.

직원도 부모도 참가하는 실행위원회 형식의 행사가 해내는 역할도 크다. 다른 보육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은 이즈미 보육원에 아이를 보내면 보육원 가는 일이 많아 큰 일이라고 오만하는 것 같지만 보육원의 부모 대다수는 꽤 즐겁게 지낸다. 오히려 그래서 새로운 원기가 끓어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좋은 그림책 소개



The Goonight Moon. [잘자요, 달님]

방연실 · 자료회원, 근로복지공단 안산 어린이집

Margaret Wise Brown & Clement Hurd 지음 / Harper Festival, 시공사/원본1,2000원, 번역본 6,000원

아이들 나이 정도의 아기토끼가 초저녁부터 잠이 들기까지의 평안함과 고요함, 그리고 포근함을 전하는 0~3세 연령에 적합한 책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림책이 주는 첫 느낌 때문입니다. (혹 나와 같은 선입견 때문에 좋은 책을 놓칠까봐..)

처음 번역본으로 책을 접했을 때, 어찌 이런 촌스런 색에 조잡함이람...그림의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거부감을 느끼며 단지 고전이란 이유만으로 책을 아이들에게 제시는 했으나, 그 묘미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달랐어요.

지금 우리 별님반(만2세) 아이들의 베스트 셀러인데.. 처음 성빈이란 아이의 작은 생쥐의 발견에서부터였습니다. 그제서야 교사인 나도 그림책 방안의 세심한 움직임과 작가의 의도를 조금씩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어울릴 성실지 않은 화려하고 대담한 색채를 사용하면서도 쉽게 감정 이입할 수 있는 캐릭터들과 안락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이름을 떨쳤던 클레먼트 허드(1908~1988)는 <잘자요, 달님>에서도 그의 독특한 느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 장은 칼라, 다음은 흑백, 다시 칼라, 다시 흑백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이 책은 칼라부분에서는 방안 풍경을, 흑백에서는 방안의 사물 하나 하나를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할머니의 털실 짜기, 벽난로

의 불, 그리고 색채에서 주는 빨강과 녹색의 조화가 크리스마스의 따뜻함으로 겨울의 포근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의 묘미는, 정지되어 있는 듯한 방안 풍경의 미세한 변화들의 작가의 세심한 묘사입니다.

칼라페이지 한 장 당 10분씩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계추의 움직임)

7시부터 ~ 8시 10분까지 1시간 10분 동안 아기토끼는 잠시나마 헤어지는 것이 아쉬운 듯 방안의 사물들과 밤하늘에게까지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책 전체의 명도가 깊은 밤으로 가고있음을 스탠드의 불빛과 전체 바탕색의 어두워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림책의 중심부에서 벽난로는 줄곧 변화되지 않고 계속 아기 토끼 곁에 지켜보고 있는 따뜻한 엄마의 모습으로 평안함을 더해 줍니다.

또한 생쥐의 유머러스한 움직임의 변화 등도 작가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밖에 에피소드들로는 액자 속에 액자가 방안 액자와 똑같은 점.

테이블 위에 그림책이 아이들이 읽고 있는 The Goonight Moon 이라는 점.

그리고 액자 속 그림의 유머 (토끼가 낚시하는데 당근을 미끼로 토끼를 잡는 그림)

아이에게 책을 구석구석 새록새록 찾아가는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기토끼의 독백처럼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이 책은 지극히 단순하고 반복적 어휘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영어문화권의 그림책이기 때문에 원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문체까지 잘 전달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인데, 이는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영어 문화권의 그림책은 각운(rhyme: 단어 끝 부분의 운을 맞추는 것)과 두운은 압운(alliteration)으로 리듬감을 살린 책이 많습니다. 이러한 그림책을 우리말로 뜻만 번역할 경우 그 맛을 잃을 수 있게 되는데, <잘자요, 달님>은 각운과 두운이 있는 명명기의 유아에게 들려주는 자장가와 같은 내용이 실린 그림책입니다.

그러므로 한글로 번역했을 때, 명명기의 유아에게는 사물의 이름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원작에 담긴 각운이나 두운에서 오는 리듬감의 맛을 잃을 수 있습니다.

Good night, kittens. (잘자요, 고양이들)

Good night, mittens. (잘자요, 병어리 장갑)

Good night, clocks. (잘자요, 시계)

Good night, soocks. (잘자요, 양말)

Good night, little house. (잘자요, 작은집)

Good night, mouse. (잘자요, 생쥐)

-김세희교수님<유아문학교육>발췌-

이는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된 그림책을 아이에게 선물에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가 외국어에 관한 자연스러운 접근으로 작가의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반짝이는 느낌의 청명한 현악기음과 졸리운 듯 나지막한 목소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테이프 속의 노래는 자장가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군요.

느리고 아름다운 The Goonight Moon 지금 다시 작가의 의도를 생각하며 책장을 넘겨 보세요. 아이들의 즐거움과 기쁨에 함께 동화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사가 사랑하는 그림책은 아이들도 좋아하는 거 아니죠?

작전개시

이정미 · 광주, 도담도담어린이집

작전명 : **비악이**

진행시기 : 4월 초순경부터 임무 완수 할 때까지

소대구성 : 남성대원 4명, 여성대원 7명, 총 11명

소대원 산상정보 입력 :

김하영(여, 99년 3월생), 양두형(남, 99년 4월생), 정세은(여, 99년 5월생), 추민수(남, 99년 5월생), 이정은(여, 99년 6월생), 이승은(여, 99년 7월생), 박재호(남, 99년 7월생), 홍인기(남, 99년 7월생), 김혜원(여, 99년 7월생), 박유빈(여, 99년 8월생)

어느덧 1개월이 다 되어 간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처음 계산, 기대는 많이 빗나가고 있다. 일의 성패는 소대원, 지휘관,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 달려 있다.

호호호!

이상은 24개월에 접어 들어가는 튼튼이반 영아들의 대소변 가리기 모습이랍니다. 첫 돌 무렵에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해서 하루에도 서너 번씩 똥기저귀를 치우게 하던 녀석들이 그새 자라서 사람구실 한다고 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그만큼 세상을 더 살았구나 하는 감상에 젖기도 합니다.

열한 명의 영아들 중 두 명이 지났어도 변기 근처엔 얼씬도 않으려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제일 막내 유빈이는 거의 실수 한번 하지 않고, 앉아서 소변을 보다가 이젠 의젓하게 서서 일을 보게된 민수, 심술만 한껏 부리더니 동생을 보면서 성공가두를 달리는 두형이, 매번 실수 연발이면서도 선생님 물래 기저귀를 뜯어서 버리고 혼나는 승은이... 엄마의 각별한 관심으로 짧은 시간에 성공한 민경이. 기저귀로 두리몽실한 엉덩이를 변기에 대고 쉬 연습을 하는 인기, 재호, 혜원이... 낮잠 깨서 한번씩은 가뭇에 똥 나듯 성공하기도 하지만요.

이런 튼튼이반 친구들을 보며 몇 개월씩 늦은 뽕뽕이 동생들이 부러워만 합니다. 이제 얼마후면 보게될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듯 뽕뽕이반 지성이와 도훈이는 틈만 나면 뽕뽕이가 그려진 변기주변을 서성인답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모두들 성공해서 뽕뽕이 엉덩이로 지낼 수 있기를...

힘내라 애들아! 튼튼이 화이팅!

씩씩이 어린이집에서 생긴 일

김미나 · 서울, 썩썩이어린이집

01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낮잠 시간을 앞두고 아이들이 잠 잘 준비에 바빴다. 동생들 쉬하는 걸 도와주라는 교사의 부탁을 받은 민재(남, 36개월)가 지원이에게 쉬통을 내밀었다. 지원이가 불일을 마치자 따라쟁이 소연이(여, 24개월)가 자기도 쉬를 하겠다고 바지를 내린다.

아무생각 없이 소연이에게 쉬통을 내밀던 민재는 갑자기 당황해 하며 소연이의 앞부분을 두리번 거리다 소리쳤다.

"어딤어?"

뒤쪽도 열심히 찾더니 또 한마디

"어디 있는 거야?"

02 4.19 이야기

다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는 시간. 누가 왔나 출석 확인도 하고 날씨도 알아보고 있었다.

이모 : 오늘은 -

아이들 : 오늘은 -

이모 : 4월 -

아이들 : 4월 -

이모 : 십구일 앗! 애들아, 오늘이 바로 4.19 날이네.

이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참견쟁이 종현(6세)이 하는 말.

종현 : (아주 당당하게) 이모! 119요?

이모 : 허걱!

03 진성이만의 리믹스

노래자랑 시간. 평소 무대 기피증이 있는 진성이가 웬일인지 씩씩하게 손을 들었다. 교사와 아이들의 기대에 찬 눈길에 잠시 긴장하던 진성은 아주 자신 있게 "산토끼"를 부르기 시작했다.

진성 : ♪ 산토끼~ 뛰어서 ♪ 어디로 가니 짱총! 짱총! 뛰어서 ~ 그러니까 토끼지 ♪
교사들은 진성이만이 부를 수 있는 "산토끼"와 "똥똥한 꼬끼리"의 절묘한 리믹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04 맞긴 맞는데... 우째...

아이들이 새로 편 꽃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이름 모를 꽃이 편 화분을 관찰하다가 유난히 꽃이나 풀이름을 잘 아는 미선(여, 7세)에게 물어보았다.

이모 : 미선아! 이 꽃 이름이 뭐니?

미선 : (좀 생각하다가) 잘 모르겠어요.

그 때 옆에서 유심히 살피던 윤지(여, 5세)가 끼어 들었다.

윤지 : 나도 아는데....

이모 : '잉? 나도 알아?' "그럼, 이 꽃 이름이 뭐야?"

윤지 : (자신있게) 노란~~꽃!

이모 : 이건?

윤지 : 빨간~~꽃!

이모 : 네~~~~~?!?! (알긴 아는데....쩍!)

육아일기

시간의 여유가 마음의 여유까지

전경숙 · 경기지부(준)

"소연아, 어린이집에 갈래?"

"아니 엄마랑 집에 있을 거야."

이사오면서 평등 어린이집을 쉬게(?) 되었는데, 우리모녀는 매일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이다. 거의 보름 넘게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정말 심심했나보다. "엄마! 나 오늘 어린이집에 갈래." 토요일 오후 2시쯤 한 이야기다. 어린이집은 3시까지 운영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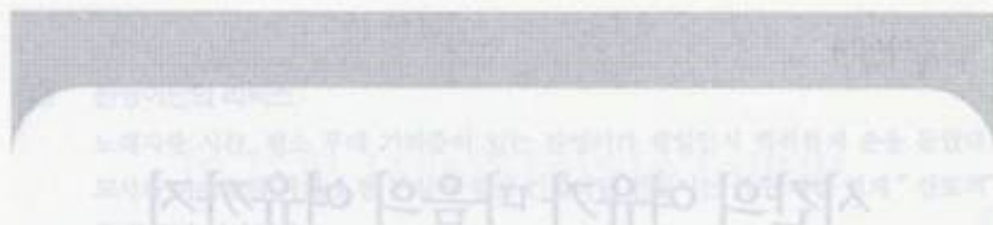
이사하고서는 엄마가 보육교사 출신이라고 아이를 데리고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욕심으로 새로 어린이집에 보내지도 않고 집에서 놀리는데, 사실 소연이도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 똥굴 똥굴하면서도 어린이집에 간다는 소리는 할 줄을 몰랐다. 어린이집 소리도 그 날 딱 하루하고는 다시 물어보면 "아니, 집에 엄마랑 있을 거야." 한다.

집에 데리고 있을 생각을 한 것은 교육도 교육이지만 아이가 좀 느슨하게 지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자고 싶을 때까지 자고 일어나고 밥도 먹고 싶을 때 먹고, 아이 몸이 요구하는 대로 지내보기로 했다.

어린이집에 출근하는 동안은 일찍 퇴근을 해야 하기에 조출(일찍 출근하는 것)을 맡아서 했었는데 엄마 출근 시간에 맞추어서 7시면 눈곱도 못 떼고 일어나 옷 입고 함께 등원하기 바빴다. 늘 그것이 안쓰러웠다. 엄마 리듬에 맞추어 지냈어야 했으니...

다른 것은 몰라도 아침에는 늦게까지 자게 내버려두고 싶었다. 그런데 옆집 친구를 사귀더니 8시5분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밥 먹고는 옆집에 놀러가겠다고 조른다. 자식 어린이집에 는 안 간다고 하더니.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좋은 것 중의 하나가 동네 문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사는 아파트는 복도식이라서 동네 친구는 아니고 같은 층의 또래들하고 어울린다. 소연이보다 어린 친구도 초등학교 다니는 오빠도 함께 어울린다. 밖에 나갔는데 조용해서 보면 다른 집에 가서 놀고있고 그러다가 친구 서넛을 몰고 와서 함께 논다. 거의 영아 때부터 어린이집에 엄마랑 같이 출퇴근을 하다시피 한 소연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다. 엄마와 떨어지면 거의 기겁하는 소정이라도 엄마를 동반하지 않고는 문밖을 한발자국도 못나가더니 어느 날인가 언니 따라 나간다고 잠바 찾고 신발 신고 나가서는 자전거 타고 놀기도 하고 언니랑



힘쓸려 다니기도 한다. 물론 3분에 한번씩은 들어와서 "엄마!"하고 불러보고 대답하면 확인하고 다시나가 논다. 자숙, 엄마가 또 떼어놓고 어디 갔을 까봐.'

어느 날인가는 언니랑 둘이 나가서 놀다가 쾅하는 소리에 울면서 들어왔다. 소연이가 뒤따라 들어서서 아파하는 품이 소연이가 소정이를 자전거 태워 주다가 함께 넘어졌나보다. 둘이 그렇게 나가서 노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다. 언니가 동생을 동생이 언니를 챙겨주는 모습이 늘 확인된다.

소연이에게 또 달라진 것이 있다면 놀 거리를 스스로 찾아서 논다는 것이다. 요즘의 관심사는 자전거이다. 집에 세 발 자전거가 있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었는데 어느 집에선가 보조바퀴 달린 두발자전거를 보더니 관심을 보이고 타려한다. 또 물러 스케이트도 벅 잡고 다니며 타려하고.. 늘 어린이집 끝나고 하원 하면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기 바꿨던 소연이가 관심거리를 스스로 찾아 노는 모습이 나쁘지는 않다. 어린이집에 다닐 때도 엄마가 조금만 부지런했으면 휴일을 자전거나 물러 스케이트를 경험할 수 있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다른 엄마들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하고 있는 것인데 나 혼자 감동해서 그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일을 쉬니까 좋은 것 중 하나가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장도 어떻게 하면 빨리 보고 집에 가서 설까? 앞 슈퍼에서 보기 일쑤이고 되도록 차를 이용하곤 했었는데 이젠 아이들 데리고 은행가는 길도, 멀리 문구점에 가는 것도 여유롭다. 그것은 소정이가 제법 걷기를 좋아해서 오고 가는 길이 덜 힘들어진 것도 있다. 내려가고 올라오면서 아스팔트 사이에 핀 꽃, 들꽃을 관찰하고 길도 천천히 걷고 중간에 놀이터에 놀기도 하고 숨바꼭질도하고 ... 어쨌든 시간의 여유가 길을 편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주는 것 같다.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다는 것은 사람을 여유롭게 만든다. 사실 내가 쉬면서 불만스러운 것은 많지만 그것은 다음에 쓰기로 하고 지금은 이 여유를 즐겨야겠다. 얼마만큼 주어질지 모르지만.....

p.s 소정이 소식 궁금하지요?

소정이는 많이 좋아졌어요. 한악을 막고 있는데 한동안 명연 현상으로 진물이 나는데 굼어서 피도 나고 그 진물이 말라서 된 딱지가 천천히 퍼지다 못에 컷구멍까지 뚫렸어요. 허물이 한 켜 덮어쓰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이뻐는 농담삼아 '우리 소정이 빅피 부인이네. 허물 벗으면 이뻐 텐데. 얼마나 미인이 되려고 (빅피부인 아시지요? 얼굴에 허물 덮고 도술 부렸다는.)' '완공발뵈' 사실 아뻐 상이 빅피예요. 소정이가 정말 좋아지면 소정이 병력일지 공개할게요.

<http://digitallaw.co.kr/> 디지털로

편집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 보면 아이들이 다쳤을 때의 법적 처리나 보육교사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또 여러 가지 시시비비에 얽혔을 경우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지 잘 몰라 답답했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답답해하지 마시고 컴퓨터를 켜세요. 디지털로에 가시면 답답했던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디지털로는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의 386 세대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전국의 현직 변호사 120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법률 정보 사이트입니다.

아래는 이 사이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 법률정보

법률 소식, 법률 상식, 법률칼럼, 법원/검찰 안내, 법령, 판례, 재판
법률 뉴스, 판례 속보, 제 개정소식, 법조계동정

>> 법률서식

가압처분서식, 민사서식, 강제집행(경매)서식, 가사서식, 형사서식, 근로 관계서식, 행정소송서식, 등기 신청, 공탁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 나홀로 소송

나홀로 소송이란 무엇인가?

나홀로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로와 나홀로 소송

☞ 나홀로 소송이란 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사건의 당사자 본인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에서의 행동요령, 소송절차 안내, 소송절차상담)

>> 법률상담

- 상담 사례 모음, 전문분야별 상담, 지역별 상담, 채팅상담

>> 변호사선임

- 변호사와 1:1 전화상담 0600-8404(변호사 고유번호)

대우자동차 노조 폭력진압에 대해

박상희 · 회원

2001년 4월 10일, 민주정부라고 불리우던 김대중 정권에게 돌이키기 힘든 사건이 일어났다.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을직한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사태가 이루어진 것이다.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라는 위협과 맞서 가족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이 연이어 전개되던 과정에서 무리한 진압은 이미 수 차례 이루어진 상태였다. 경찰은 진압과 더불어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폐쇄하는 조치를 하였고, 노조원들이 법원에 요구한 결과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받아내게 되었다.

폭력진압 하루전인 9일 박훈 변호사와 노조원들은 노조사무실 출입을 시도하다가 회사측의 요구로 이미 출입을 통제하고 있던 경찰측과 대치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폭력진압이 이루어졌다.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난 사항을 경찰이 막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출입여부를 놓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그리도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되었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하지만 더욱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사태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태도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당하게 노동조합 사무실로 들어가려던 노동자들을 가로막고 폭력으로 진압한 것은 어떤 이유를 들이대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경찰 주장대로 설사 민주노총 소속 변호사가 흥분한 상태에서 노동자를 선동하고 경찰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또 포위된 동료들을 '구출'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을 마치 적을 대하듯 방패로 무자비하게 내리치고 곤봉과 발길질로 못매를 가한 것은 도저히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진상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명분 하에 자체 편집한 비디오를 상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박훈변호사 발언의

박훈 변호사 발언의 진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박훈 변호사는 3월 31일 사회관계 장관회의의 화염병 강경대처, 3월 19일 대검 공안부의 공안대책회의의 활성화 방침, 4월 4일 사회관계 장관회의의 과격시위 대책논의 등을 볼 때 이번 사태는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태를 이처럼 악화시킨 경찰의 폭력진압은 이미 예고된 것이기도 했다. 3월 31일 사회관계 장관회의의 화염병 강경대처, 3월 19일 대검 공안부의 공안대책회의의 활성화 방침, 4월 4일 사회관계 장관회의의 과격시위 대책논의 등을 볼 때 이번 사태는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태를 이처럼 악화시킨 경찰의 폭력진압은 이미 예고된 것이기도 했다. 3월 31일 사회관계 장관회의의 화염병 강경대처, 3월 19일 대검 공안부의 공안대책회의의 활성화 방침, 4월 4일 사회관계 장관회의의 과격시위 대책논의 등을 볼 때 이번 사태는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정부의 이번 일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경찰의 폭력진압을 현장 책임자의 잘못 탓으로만 돌려선 안 된다. 최근 구조조정이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 아래 진행되면서 화염병이 제동장하는 등 시위 양상이 과격해지기는 했지만 초강경으로 치달는 경찰력 대응이 위험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노동계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부평경찰서장과 인천 경찰청장을 직위해제한 데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으나 이 정도로 파문이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 경찰의 '비디오 자의적 편집'에서 보듯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며 얼버무리려는 태도로는 성난 노동계를 달랠 수 없다. 폭력진압이 일어난 배경과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지위를 가리지 말고 엄하게 책임을 묻고 이에 걸 맞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천리길 진주라!!!

주로미 · 회원

이곳은 정말 봄입니다.

햇빛은 나뭇가지에 작은 세순이 돌아 있고, 쓸쓸하게 늘어져있던 개나리 가지에 노란 꽃망울이 만발하게 터트렸습니다.

이른 아침 남편과 상구 손을 이끌고 이곳 진주산성에 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트기 전 붉게 물든 진주교 뒷편의 하늘은 우리 가족의 하루를 열어줍니다. 이제 막 시작한 달리기로 조금만 뛰어도 숨가쁜 소리 때문에 주변사람의 걸음 짓을 받기도 합니다. 아직 정신이 없어 주변의 모습을 즐길 줄 모르지만 몸 속에서 빠져 나오는 땀들이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상구는 오늘도 야구연습을 하고 난 후 나무 (일명 상구나무 - 아침마다 나무 위에 앉아 뜨는 해를 보곤 합니다.) 주변에 쪼그리고 앉아 있더니 뒷짐을 지며 "엄마한테 줄게 있어. 뭘까요?" 하며 다가옵니다. 아마도 봄을 제일 먼저 맞는 들꽃이 아닌가 합니다. 그 꽃잎이 너무 작고 볼품없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이제 막 들은 새싹들 틈에 삐뚤게 크긴 해도 그저 잡초로 치부하게되는 꽃입니다. 밀가루를 채쳐서 뿌려놓은 듯 흰 꽃잎이 바람결에 흔들려 긴가 민가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꽃이지요. 한 움큼 뿌리 채 뽑아들고 선물이라며 내미는 상구의 고사리 손이 자못 그 꽃과 같습니다. 뿌리를 깊게 박지 않아서인지 상구의 힘으로도 송두리째 뽑혀 나오는 것이 하찮다가도 겨우내 언 땅을 비집고 누구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힘으로 꽃잎이 서는 것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감동하여 한아름 들꽃을 받아 안고 냄새를 맡아 보았습니다. 꽃향기는 말할래야 말할 수 없어도 뿌리향기는 흙 내용과 함께 그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좋아 호들갑스럽게 남편에게 갖다 대었습니다.

봄은 그렇게 우리 곁에 훌쩍 와있습니다.

진주에 내려와 보니 왜이리 모르는 게 많던지요. 지천으로 피는 이 작은 꽃 이름조차 알 길이 없으니 말입니다. 작은 도시 속의 작은 자연 앞에 궁금증이 발동한 상구에게 가르쳐줄게 없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 식물도감이라도 사서 들고 다닐 요량입니다.

낮선 곳에 새둥지를 트는 것이 만만치 않을 진대 이렇게 봄 향에 취해 호사를 부려도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회회낙락 해본 게 얼마 만인지... 보름밖에 안된 저의 진주생활에 서울의 아는 이들은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 배신감(?) 마저 드는 건 아닌지.... 만만히 마음 부칠 곳 없어 이렇게 봄 향이라도 취해보려는 거라 이해를 구하면 뭘까요?

제가 이렇게 낮가리기가 심한 줄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속내 다 들어 내놓고 지내왔던 동료들과 떠나와 살다보니 사람 사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 그럴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저 추억의 한 귀퉁이를 야금야금 씹는 것이 좋으니 말이에요. 좋으니 싫으니 해도 함께 했던 씩씩이 교사들이 제일 보고 싶고, 그 안에서 알콩달콩 함께 한 아이들이 보고싶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수병이 아닌가 합니다.

진주산성은 아기자기한 공원입니다.

그저 나무와 꽃들이 있어, 사람들을 쉬게 하는 그런 공원이 아니라 성벽 하나 하나에, 굽이굽이 산책길 따라 역사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세 식구가 양팔을 뻗어도 나무둘레를 잡을 수 없는 논개 나무- 그 나무엔 400년 전 논개를 그네에 태웠던 풍류와 함께 왜군에게 처참하게 죽어간 백성들의 험난한 삶을 송두리째 지켜본 지난한 세월이 담겨있습니다. 산성을 따라 온은한 자태로 남강이 흐릅니다. 검은 빨래 접개 빨고, 흰 빨래 회개 빨았던 며느리가의 여린 순정이 씻기고 씻겨 흘러갔던 곳이지요. 노랫가락으로만 들었던 진주 남강은 한강처럼 벅차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인들의 한숨과 사랑과 불같은 충심이 담기나 봅니다. 강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고기들이 파닥거리는 것을 볼 수 있어 한가롭기까지 하니 그 깊이가 지순하기 그지없습니다. 작은 것을 새롭게 볼 수 있어 행복한 이 생활이 언제까지 저를 잡아 둘 진 모르겠습니다. 그리움과 외로움이 넘쳐, 추억의 그림자를 씹을게 없을 때 또 다른 삶을 계획하게 되겠지요. 아직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더 그리우니 당분간 이렇게 살 것 같습니다.

남강의 강바람이 상구의 발걸음을 마냥 하늘거리게 합니다.

2001년 3월 24일

진주산성에서

낮선 이름으로 주로미

* 주로미는 얼마 전까지 씩씩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며 '어린이집에서의 하루'를 연재하신 주혜민 선생님의 본명입니다. ^^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글은 본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 온 글입니다.

최근 유아교육계의 최대 관심사는 5세아 무상교육을 포함한 유아교육 법안 제정의 문제인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것이 사회 속에서는 얼마만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다.

5세아 무상교육의 표면만을 보았을 때는 반대의 여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혹시 주위의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국가가 무상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공교육화를 실현 해 주겠다는 데 무슨 반대가 있겠는가!"

"공교육을 해주는 데 법적인 틀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건지...

개인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아동의 입장에서 논리를 펴고 있는 '한국보육교사회'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결과는 유아관련 단체간의 밥 그릇 싸움, 이 속에서 보육교사회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염려를 해 본다.

한국보육교사회의 입장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더 첨가하여보면 어떨까 한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 시장 자유경제주의, 국제화시대의 허울좋은 논리 속에 지금 얼마나 노동계와 교육계가 원칙 없이 흔들리고 있는가? 노동계는 대기업과 국가의 횡포아래 아무 죄 없는 무수한 노동자와 영세업자들이 길 바닥으로 내 몰리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서 대우 노동자들은 민중의 지팡이(?)이라는 경찰에게 두들겨 맞기 까지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교육계는 어떠한가? "교실붕괴"의 논리 속에 엄청난 사교육비의 창출과 학력위주의 교육현실 그리고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고 황급히

들 어린 자녀를 유학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계나 교육계나 이러하다는 것에 모두들 유감의 표시를 나타낸다.

유감? 그러나 여기에서 끝날 문제일까?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 교육시장이 개방된다. 유아 교육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만약 외국의 유아교육시장이 밀려들어온다면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과연 국가가 정해 놓은 틀 안에서 획일화된 교육환경이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다양화되어 가는 보육의 서비스를 그들만큼 담보해 낼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잘못하면 사교육비의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논리가 혹은 때려다 바위(?)를 붙이는 격이 될 수 있다.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공교육화의 안에서의 재정적 지원이나 행정의 근거가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이를 위해 법적인 틀인 유아교육법안의 제정과 영유아 보육법의 올바른 개정작업은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현 상황을 옳게 바라보고, 이를 바르게 실현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유아교육계는 이 문제의 현안을 지금의 중, 고등학교가 겪고있는 교육계의 모습이 남의 일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각인 해야 하며, 올바른 유아교육의 실현과 밀려오는 교육시장개방의 대세 앞에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교육의 내용과 올바른 무상교육의 제도마련에 대하여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싸워야 한다.

아래의 글은 보육발전기획단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퍼온 글입니다.

보육발전기획단 홈페이지 주소 >> <http://childcare.kihasa.re.kr>

TV 100분 토론을 보고 마음이 씩씩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제기되기 전에 정부를 비롯하여 보육과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들은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좀 더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았을까요?

공허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는 실제 누가 앞으로 더 보육과 교육 현장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가가 관건이라는 생각입니다.

현재의 보건복지부와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교육인적자원부나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보육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사실 안이했

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이 낮은 보수 교육, 현재 교사들의 처우 문제-장시간 근무, 저임금 등-이것은 교사의 처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육의 질을 낮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교사의 처우는 100분 토론에서 표 교수님이 지적했듯이 도저히 교사 이익집단이 있을 때는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지요. 이외에도 공무원의 비전문성, 보육교사나 시설장의 임용과 자격기준의 비체계성 등 현장에서 부딪히는 가슴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해보려는 연합회 등에서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 앞으로의 미래를 염려스럽게 합니다.

그렇다고 교육부나 유아교육이 열심히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유아교육의 전문성에 있어서는 낫겠지요. 그러나 많은 취업모의 어머니들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황망해하고 있을 때, 많은 아이들이 안정된 보육을 받지 못하고, 이 친척 저 친척 집을 전전하고 있을 때 유아교육계는 냉담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유아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낮은 예산이나 아직까지 유아교육법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과연 누가 쉽게 믿겠습니까? 청사진은 좋으나 과연 실천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처우도 역시 낮은 수준이며, 행정적인 관리의 비체계성 역시 마찬가지이고, 초중등 중심의 행정지도 역시 일선에서 문제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누구도 목소리를 높여 상대방을 비방하기 이전에 자신의 잘못된 점을 숙연히 반성하고 앞으로 실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100년의 외침보다는 단 한번이라도 내실 있는 실천과 '우리 보육계가 과연 잘하는구나' '보건복지부는 역시 믿고 따를만해'라는 소리가 나올 때 진정 이러한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과 어린이집 등 영유아들이 있는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비판하고 좋은 미디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며, 미디어 의존도를 줄이고 건강한 가족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부모와 함께 하는 미디어 바로보기” 무료강좌 및 자료집 배포안내

집집마다 TV가 1대 이상은 물론이고 비디오와 컴퓨터, 각종 게임기까지 구비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각종 정보들을 여과 없이 흡수하며 미디어에 점점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과 어린이집 등 영유아들이 있는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비판하고 좋은 미디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며, 미디어 의존도를 줄이고 건강한 가족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어린이집 부모 교육 “미디어 바로보기” (마감됨)

일시 : 2001년 5월 ~ 6월

대상 : 서울지역의 어린이집 부모회(신청 우선 순위 15개소)

참가비 : 무료

교육내용 : 미디어가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좋은 미디어 골라보기

광고와 어린이

영유아 대상 TV 프로 모니터 방법

•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일정에 맞춰 강사를 파견합니다.

■ 어린이집일반 부모 교육 “미디어 바로보기”

일시 : 2001년 6월 15일(금), 22일(금) 오후 3시

대상 : 일반 가정 학부모 (각 강좌당 20명)

장소 : 청산교육장(4호선 동대문운동장 4번 출구)

참가비 : 5,000원

교육내용 : 위와 동일

■ "미디어 바로 보기와 TV 하루 안 보기 운동" 자료집 무료 배포

일시 : 2001년 5월 ~ 6월

대상 : 서울지역의 원하는 어린이집, 일반가정

■ 엄마 미디어 감시단

일시 : 2001년 6월

대상 : 부모교육을 받은 학부모 중 20명

활동내용 : 모니터할 프로그램 선정 후 각 가정에서 모니터 일지 작성, 방송국과 영상물 제작소에 의견 전달과 인터넷에 모니터 결과 게시

참가비 : 무료

■ "TV 하루 안 보기 운동" 워크샵

일시 : 7월 7일(토) 오후 2시

장소 : 여성평화의 집 지하강당(4호선 동대문운동장 4번 출구)

대상 : 보육교사 20명

교육내용 : 어린이집에서의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

TV 하루 안 보기 운동 사례 및 방법 소개

TV 하루 안 보기 운동 포트폴리오

강사 : 박영미(전 한미어린이집 원장), 김병록(미디어교육센터 소장),

이정주(어린이 영상물모니터모임 회장)

문의 :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 ☎ 2271-1548

주최 :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

후원 : 서울특별시

2001년 부산보육교사회 생태 환경 교육 실천사업 안내

우리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아이들에게 지식 중심의, 어른 중심의 환경교육을 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환경교육, 생태교육은 무엇일까요?

자연보다 컴퓨터와 더 친한 요즘 아이들을 어떻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을 한해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해결할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오니 많은 선생님, 어린이집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 아이들과 함께 하는 생태, 환경 실천 교육

2. 사업 내용

■ 교사 위한 생태, 환경교육 강좌 : 상·하반기

강좌1 : 어린이 생태교육의 이해 - 6월 1일(금요일)

강좌2 :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우리 민속놀이 알기 - 6월 15일

(절기와 세시풍속/전래요/전래놀이)

강좌3 : 자연물 소꿉놀이 다양한 동구미 그릇, 바구니짜기

강좌4 : 자연물을 이용한 놀잇감 만들기 - 9월 초 계획

강좌5 : 자연물 재료를 활용한 미술, 놀이 활동 - 9월 초 계획

강좌6 : 들꽃기행 : 9월 23일(예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숲속 체험교실

대상 : 어린이집 6,7세(7세중심) 소집단 신청, 신청 접수순 마감(15명 이내)

1차 : 6~7월 (주1회×4) 2차 : 9~10월 (주1회×4)

장소 : 부산대 신축학생회관 위쪽, 금정산 줄기

내용 : 자연속에서 놀이를 통한 생태이해와 자연에 대한 개념 익히기

자연속에서 지켜야 할 예절 배우기

오감을 통한 자연 체험하기, 숲속의 놀이

자연속에서 모험과 탐험

■ 어린이집에서 실천가능한 환경교육 지원, 지도

- 플라스틱 장난감을 자연물 장난감으로 바꿔주기
- 나들이 활동을 통한 주변 공원 가꾸기, 텃밭 가꾸기
- 환경관찰일지 만들기, 내 손으로 만드는 자연도감 등

■ 의망과 행복을 주는 생태, 환경교육 자료집 발간

3. 문의 및 접수 : 부산보육교사회 ☎ 554-9668 / FAX 557-4216

E.mail: pdta2001@hanmail.net

※ 이 사업은 녹색도시 부산21에 공모하여 함께 하는 실천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추후 공고하겠습니다.

책 | 소 | 개 |

■ 아이들이 쓴 세계 인권선언 이야기 깨어나, 일어나

국제평화의 어린이회 지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옮김/ 사람생각/ 8,000원
세계인권선언 탄생 50주년을 기념하여 출간된 이 책은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효과적이고도 독창적인 해설서로 상상력과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들과 시, 실제 경험담, 삽화들이 모여 세계인권선언의 각 조항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 안산어린이집 운영보고

안산 어린이집에서 운영보고에 관한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설립취지에서부터, 운영방침, 보육프로그램, 연간행사, 건강 및 영양 안전관리, 교직원 조직표, 자원관리까지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구입방법이나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곳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방법: (031) 491-4210~1

영유아보육법 · 제도 개선을 위한 인터넷 공청회

보육발전위원회 기획단에서는 그간의 각 분과별 연구결과에 따른 최종 정책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우리나라 아동보육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회각계각층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배경 및 의의

1. 추진배경

- 급변하는 21C를 맞이하여 우리 나라 아동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관련법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부터 보육발전위원회 기획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음.
- 연구위원 19인, 4개 분과(보육행정 지원체계 연구분과, 보육인력 연구분과, 보육재정 연구분과, 보육과정 특수보육 연구분과)로 추진되어 온 기획단의 연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
- 보육발전위원회 기획단에서는 지난 2월부터 홈페이지를 가동하여 기획단에서 추진해 온 연구결과물 및 정부의 보육정책 관련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토론타당 등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해 온 바, 이를 보다 활성화하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인터넷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함.

2. 의의

- 금번 실시하는 인터넷 공청회는 보육발전위원회 기획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각 분과별 『제도개선안』을 구분하여 연구결과물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게시된 각각의 연구분과 별로 별도의 토론타당을 마련하여, 공청회 참여자의 관심분야별 전문적인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며, 또한 각 연구과제별 연구진의 연락처를 공개하여, 각 연구과제별 연구자와의 직접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본 기획단의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 나라 영유아보육법 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추진될 것인 바, 일부 관계자에 의한 제도추진의 방식을 지양하여, 우리 아이의 올바른 보육을 위해 전 국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임.

나. 실시 및 참여방법

1. 실시기간

- 2000년 5월 7일~5월 26일(20일간)

2. 참여방법

보육발전위원회기획단 홈페이지 접속

(http://childcare.kihasa.re.kr)

↓↓↓

『제도개선안』 내용 검토

상단 메뉴 중 『제도개선안』 클릭(click)

↓↓↓

『토론타당』 참여

3. 문의처

○ 보육발전위원회 기획단 실무지원반:

02-355-8004(내선 268, 15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어린이 뮤지컬 "노을의 소원"

천상에서 못된 짓을 일삼아 사슴으로 변해 지상으로 내려 온 왕자는 사냥꾼에게 쫓기다 노을을 구해준 대가로 노을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내용

일시: 5월 2일 - 31일/ 평일 2시/ 토요일 12시 30분, 2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센터 파랑새 극장

관람비: 6,000원

문의: 743-1683

산골아이들 놀이학교

계룡산 상신마을에 자리잡고 있는 '산골아이들놀이학교'는 도시 아이들이 자연의 너른 품에 안겨 스스로 또 함께 하는 옛공동체 놀이를 매개로 자율성, 창의력, 사회성, 감성 계발 등 산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본성에 맞춰 놀이의 맥을 끊지 않고 아이가 하고싶은 것을 맘껏, 그리고 자연스럽게 공간을 이동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1. 놀이

모닥불장난(가래떡/감자구워먹기), 트럭

타기, 동네한바퀴- 시골집, 옛방앗간 옛보기- 그림, 글쓰기, 산책, 휴장난, 옛그네, 줄타기, 널뛰기

2. 놀이 시간

1박 -> 오후 4시 ~ 다음날 2시

3. 참가비

1박 -> 3만원/ 신청 (온라인 입금 국민 461-21-0179-111 권완상)/ 취소, 연기 시 20% 공제

4. 문의처

041-857-0697/ 011-429-0697

5. 준비물

침낭, 수건, 편한 여벌옷, 양말, 주소, 우표 붙인 규격 봉투, 사진 1장 (3*5 이하)

중앙소식

- 3월 4일 '3.8 여성대회'에 다녀 왔습니다. 서울지부의 회원여러분과 경기지부회원여러분이 참석했습니다. 멀리 부산에서도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3월 5일 서울기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프렌스 센터 9층 목련실에서 있었습니다. 본회에서는 이윤경 공동대표께서 참석하셨습니다.
- 3월 9일 어린이집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건강교사모임 준비모임이 있었습니다.
- 3월 28일 MBC에서 유아교육법 제정 관련하여 100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본회에서는 이윤경 공동대표가 출연하였습니다.
- 4월 11일 건강보육환경실천을 위한 연대모임(건강한 보육환경실천을 위한 시설장모임, 기독교민회, (사) 관악사회복지,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동희망나눔, 수원여성회, 열린사회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보육교사회), 공동육아연구원, 서울YMCA, 각 지역 공부방연합회(가톨릭, 대전, 부천, 서울, 인천, 전라), 한국부스러기복지선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주최로 서울 YWCA 강당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김종해 교수의 주제발표로 있었습니다. 또

- 한 토론자로 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서울 YMCA 한명섭 간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이해원 교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 4월 13일 교육센터 봄 강좌 - 전통 놀이감 만들기- 등구미를 이용한 가방 만들기를 실시했습니다. 서은희 공동대표와 이상옥 선생님이 강사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 4월 14일 경기지부 회원의 날 정책교육이 있었으며 이윤경 공동대표가 강의해 주었습니다.
- 4월 17일 영유아 보육법 개정추진연대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와 이경녀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 4월 19일 건강교사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건강교사 모임에는 유소아과의 김윤희 선생님과 보육교사회와 연계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함께 합니다.
- 4월 20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연석회의에 이경녀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 4월 20일 교육센터 봄 강좌 - 장갑 인형 만들기를 실시했습니다. 양은희 선생님이 강사로수고해 주셨습니다.
- 4월 28일 교육센터 봄 강좌 - 한지 프로젝트 활동이 3회 연속강좌로 시작되었습니다. 어깨동무 원장이신 양은희 선생님이 이번 강좌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지부 소식

서울지부

- 3월 8일 여성대회가 있던 날 여성대회 참석 후 조직부원들이 '어둠 속의 댄서' 영화관람을 하였습니다.
- 3월 22일 오감살리기 미술 소모임이 첫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기 모임으로 매월 1회의 모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3월 28일 서울지부 정책교육이 있었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가 강사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 서울지부(조직부)에서는 교사들의 건강을 위해서 등산 소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1차 모임은 4월15일 북한산에서 있었습니다.
- 4월 7일 서울지부에서는 영화 '친구'를 관람하였습니다.

부산지부

- 3월 2일 동래지회에서는 그림책과 인형만들기 소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시설 아동의 정서 심리적 안정과 어휘력, 사고력 신장 및 내면의 성장을 돕기 위한 독서·글쓰기 교육지원사업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실시합니다.
- 3월 21일 부산지부 휴직한 교사들이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 3월 22일 그림책의 세계와 그림책을 통한

다양한 독후활동을 주제로 교사 재교육을 하였습니다.

- 3월 23일 녹색도시 부산21 지원으로 부산지부에서 실시하는 생태, 환경 실천 참가 교육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녹색도시 부산21의 지원으로 생태, 환경 교육 실천사업을 실시합니다.
- 4월 27일 '신입회원교육'이 있었습니다.
- 5월 5일 부산지부가 부산대학교 부속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날 행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전남지부

- 4월 7일 도담도담 어린이집이 11주년을 맞이해 지역 아동을 위한 바자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 4월 17일 전래동요 소모임이 새로운 각오로 2001년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 4월 21일 대중강좌로 등구미 짜기 교육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 5월 2일 도담도담 어린이집 이정미 선생님이 여성부 장관과 함께 하는 사이버 토론을 잘 마쳤습니다.

대구지부

- 5월 5일 대구교대에서 여는 "통합 유아마당"을 대구지부가 주최가 되어 행사를 마쳤습니다.

경기지부

- 3월 17일 경기지부에서는 교육강좌를 실

시했습니다. 형견인형 만들기와 등구미 짜기 강좌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 4월 14일 경기지부 '회원의 날'이었습니다.
- 5월5일 경기지부 수원지회에서는 수원 어린이. 청소년 한마당 "서로 달라 아름다운 우리"의 행사를 마쳤습니다.

인천지부

- 3월 한달 동안 매주 목요일 "글쓰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인천지부가 사무실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032-529-0215) 날로 발전해 가는 인천지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4월 21일 (토) 회원의날 장소는 오랜 기간에 거쳐 마련한 사무실에서 저녁7시에 있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 국악 강습회가 4월부터 6월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이직했습니다

- 서울지부의 이상옥 선생님이 9년동안 근무하셨던 아현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어께동무 어린이집으로 이직했습니다.
- 새로운 곳에서도 항상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니다.

- 서울지부의 이준희 선생님이 어린이집을 이직하셨습니다.
- 서울지부의 이선미 선생님이 6년동안 근무하셨던 아현 어린이집을 그만 두고 별나라 어린이집으로 이직했습니다.

축하합니다

- 부산지부의 파랑새(김혜원) 선생님이 한 명도 아닌 아들, 딸로 쌍둥이를 낳으셨습니다. 모두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두 명이나 아이들을 낳으시냐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인천지부 선생님이 결혼을 합니다.
- 광주전남지부의 도담도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정신애 선생님이 5월 12일 1시에 결혼을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구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원할게요.
- 서울지부의 김연숙 선생님이 휴식을 마치고 씩씩이 어린이집으로 복직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 인천 강화도에 살고 계시는 임미란 선생님이 둘째 딸을 낳았답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산후조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지부의 막내이고 가장 긴 기린 선생

님(손수정)이 시집을 간데요. 5월 26일 (토요일) 오후2시30분이구요. 영등포 구청 목화예식장 본관2층 청실이랍니다. 많이 많이 오셔서 축하 부탁해요.

- 전 조직부장이었던 박정애 선생님이 드디어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첫 시범운전으로 동네 한바퀴를 돌았답니다. 장롱면허인 분들 부럽지요?

환영합니다.

- 서울지부의 어깨동무(서혜선, 김주희, 이미정) 선생님들과 서형주 선생님이 새로 정회원으로서 새로 가입하셨습니다.
- 서울 모아래 어린이집의 이민재, 김태후 선생님이 준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 3월 10일부터 예전 어깨동무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조선정 선생님이 중앙의 새로운 상근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인천지부의 류지민 선생님이 준회원이가입을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수원 평동 어린이집 지연 선생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 지난 3월 나주에서 살던 이선주 선생님의 남편이 교통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현재 이선주 선생님은 아들 홍준이와 함께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 서울 튼튼이의 김숙자 선생님이 2층 계단을 올라 가다가 계단에서 떨어져 현재는 수술을 하고 요양중입니다. 건강이 하루 빨리 완쾌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전 회장인 정희연 선생님이 올 여름에 영국으로 살러 갑니다. 영국의 어디로 갈지, 가서 무엇을 할지는 아직 결정 나지 않았지만 아무튼 간담입니다. 새 삶을 시작하는 정희연 선생님의 앞날에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 good luck!

회비를 내셨습니다.

〈서울지부〉 4월 일부
 〈부산지부〉 3월 완납
 〈인천지부〉 3월 완납
 〈광주전남〉 1월 완납
 〈경기지부(준)〉 3월 일부
 〈기타〉 서은희 3월, 홍현지 12만원, 김호연 2만원
 〈자료회원〉 부산보육정보센터, 백미나, 김희숙, 신망어린이집, 안희진, 박선영, 차숙옥, 이준자, 김정희, 별나라어린이집, 김영옥, 김수연
 〈후원해 주셨습니다〉
 윤선영 5만원, 이윤경 20만원, 이상옥 10만원, 주혜민 10만원

〈북한산모듬기와 아동에게 내복보내기 후 원해 주셨습니다〉

부산지부 아이들세상어린이집/ 아기자람터놀이방/포구나무어린이집 /치치폭폭어린이집/콩콩어린이집 /쌍쌍어린이집/ 튼튼이어린이집/코보어린이집/ 주감어린이집/함께노는어린이집/옥소리어린이집/ 피노키오어린이집 /강미경, 이상원, 윤순심, 배서영, 김지윤, 김다준, 김승일, 황정희, 권진오, 안윤조, 김현태, 정영미, 조순영, 박기현, 박경빈, 강현명, 정옥경, 강민정, 성장호, 심미연, 한연래, 편해문, 김향진, 노용명, 박은숙, 신혜정, 김현순, 강영희, 강은진, 김재수, 류종필, 윤승희, 김성진, 허인대, 이은영, 이시진, 노정숙, 안현주, 고은순, 김예윤, 이재숙, 김경희, 김용휘, 전향진, 박설아, 정재은, 이시원, 차민영, 이유진, 임미남, 이수현, 최이숙, 김숙희, 김숙연, 박재동, 임숙자, 장유영, 김형진, 이경희, 우석진, 현재열, 김민지, 최준홍, 김선옥, 나선임, 윤송조, 조영미, 김양희, 이미정, 정은아, 김혜련, 안세윤, 김이숙, 광복회, 조상희, 이희주, 고안덕, 조영순, 성영애, 정의숙, 안영주, 박지호, 김영수, 박경인, 서윤준, 이병우, 임호준, 재옥광, 한창용, 정현옥, 김애란

본회 3·4월 월명일지

3월 4일	3.8 여성대회
7일	확대집행위
16일	여연 복지위
19일	보육정책위원회의
21일	보육발전 기획단회의 참석
26일	확대집행위
28일	서울지부 정책교육
31일	1차 운영위
4월 2일	보육정책위 회의
6일	보육발전기획단 회의 참석
1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 공청회
13일	교육센터 봄강좌
14일	경기지부 정책교육
16일	확대집행위
17일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연대회의
19일	건강교사 모임
20일	여연 사무국장 연석회의
28일	교육센터 봄강좌
30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추진연대회의

보육교사란?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전문직입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을 돕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합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학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와 협력하여 영유아의 발달을 돕습니다. 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영유아의 학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와 협력하여 영유아의 발달을 돕습니다. 보육교사의 자격 보육교사는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보육교사자격증은 보육교사로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보육교사의 중요성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발달을 돕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합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학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와 협력하여 영유아의 발달을 돕습니다.	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영유아의 학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와 협력하여 영유아의 발달을 돕습니다. 보육교사의 자격 보육교사는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보육교사자격증은 보육교사로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보육교사의 중요성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발달을 돕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합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학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와 협력하여 영유아의 발달을 돕습니다.
---	--

교사선언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집합니다.

○ 정회원이 되면.....

- 매월 1만원+매(연회비 12만원과 지부/지회별 일정회비)를 납부합니다.
- 지부, 지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정회원의 권리로써 사업에 대한 의견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 중앙과 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참여시 회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 지부/지회에서 운영하는 각종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이나 관매자료 구입 시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준회원이 되면.....

- 연 6만원의 회비를 납부합니다.
- 중앙 및 지부, 지회의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면.....

- 연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 격월 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 1년 구독과 본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각종 강좌와 행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회원이 되면.....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비납부는

국민은행 019-21-0952-190 이윤경으로 입금하시고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2-2275-8505)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분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보육종사자 교육
- 보육관련 연구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75-8505 / 전송 02-2275-850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dta.or.kr> / e-mail: kdta@chollian.net

한국보육정보연구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68-3954 / 전송 02-2275-8506 / wawbest@jinbo.net